

100년의 날개로 더 큰 미래로

동국발전 방향 설명회 개최 ... 명문사학 재도약 기반 구축 다짐

올 한해 동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청사진이 공개됐다. 지난 23일 서울캠퍼스 전임교원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힐튼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2005 동국발전방향 설명회'를 통해서다.

'2005 동국발전방향 설명회'는 이사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2005 대학운영방침과 새로운 동국 백년 에 관한 프리젠테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현해 스님은 격려사에서 "올해는 동국 100년의 역사를 아로 새기고 미래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며 명성을 되찾기 위한 대학의 혁신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이어서 유석천 기획처장은 '2005 대학운영방침과 새로운 동국 백년의 구성'을 주제로 △우리 대학의 현주소 △2005년 대학운영 방침 △2005년 중점추진과제 △우

리 대학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대학의 현주소'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확보율 및 1인당 학생수가 주요대학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각종 평가에서 경쟁력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우리학교는 올해 신입교수 17명의 채용으로 2005년도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인 교원 확보율 50%는 만족했으나 2006년 에 따라 앞으로는 전임교원 확보는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유석천 기획처장은 "개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정확충을 위해 발전기금 모금과 국고보조금 확충을 배가할 방법을 모색중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2005년 대학운영방침'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제반여건개선 극대

화 △교육강화 및 연구역량 제고 △각종 평가와 특성화 사업에서 수월성 제고 △효율적 공간재배치로 교육·연구기반 안정적 구축 △100주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정했다. 우리학교는 이러한 주요방안들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 15일 대대적인 행정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또한 '2005년 중점추진과제'로는 △동국 백년 마스터플랜 수립 및 비전 선포 △건학 100주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교양교육 및 국제교육 강화 △의료사업 경영개선 등 총 10가지의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동국 마스터플랜과 같은 계획들을 실현가능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확실한 재정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대학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동국백년 마스터플랜 추진 방향과 추진 체계, 우리대학의 발전 목표 등이 제시됐다. 동국백년 마스터플랜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시스템의 선진화 △인프라 및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특성화 분야 중점 육성 △연구의 수월성 제고 등이다. 흥기삼 총장은 △5월 불교병원 시범개원 △100주년 기념사업 가속화 △내년도 서울·경주캠퍼스 간 행정분리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 총장 인터뷰 4면

한편 교수회(회장=염준근)는 "우리대학의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재단전입금의 확충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행정조직 개편 단행

교수학습개발센터 신설 · 통합 행정지원실 구축

기초교육 강화, 대학(원)중심 행정, 평가지원 시스템 강화, 교수학습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행정조직개편이 지난 15일 단행됐다. 따라서 교수학습개발센터, 국제교육원, 교양교육원 등 부속교육 기관이 신설됐고 관련 단과 대학과 대학원 교학과가 통합 됐으며 기획처를 포함한 몇개 부서 조직구성이 변경됐다.

먼저 기초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운영기관으로 교양교육원과 국제교육원이 신설됐다. 교양교육원은 대학환경에 맞게 교양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영어 등 우리 학교가 특성화할 수 있는 불교 관련 언어교육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국제교육원

영실에서 실시한 각 교양강좌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교양교육운영과정 개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교육원은 외국어교육센터, 한국어 교육센터, 국제교류실로 구성된다. 이는 언어연구교육원의 역할이 확대된 외국어교육센터와 함께 한국어 교육센터가 신설되고 국제교류실이 통합된 것이다.

앞으로 외국어교육센터는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어, 독일어, 한문 등 다양한 언어교육을 담당하게 되며 특히 산스크리트어, 범어 등 우리 학교가 특성화할 수 있는 불교 관련 언어교육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국제교육원

에서도 한국어 교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교학, 한국학 등

관련문과의 연계과정도 신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단과대학과 대학원의 통합행정지원실이 구축된 것도 큰 변화중의 하나이다. 통합행정지원실 구축으로 인해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공간과 인원이 늘어났다. 통합행정지원실의 구성은 △불교대학원과 불교대학 △행정대학원과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원과 경영대학 △언론정보대학원과 국제정보대학 △산업대학원과 정보산업대학 △문화예술대학원과 예술대학이다.

또한 평가지원 시스템 강화를 위해 심사평가팀과 교무기획팀을 신설했고 교수학습 지원을 목표로 하는 교수학습개발센터도 신설됐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gu.edu

학내공간 재배치 공사 진행

강의실, 교수연구실 부족문제 부분적 해결 기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구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와 행정조직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학내 공간 재배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중앙도서관에 위치하고 있던 950석의 일반 열람실과 대학원 열람실이 1410석으로 확충돼 구도서관으로 이전됐다. 이에 중앙도서관 1층에 위치하던 불교학 자료실은 기존에 열람실로 이용했던 3층으로 이전되며 1층에는 자연과학 자료실이 위치하게 된다. 이로써 그동안 중앙도서관 자료실 배치로 중단됐던 도서 열람 및 대여는 오늘(28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불교대·불교대학원과 법과대 역시 구도서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동국관과 문화관 일부 공간에 대한 재배치 공사가 진행 중에 있

으며 대부분의 공사는 개강 전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이번 공간 배치가 그동안 부족했던 동국관과 문화관의 강의실, 교수 연구실 등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실시 중인 일부 공간의 변동 이외에도 앞으로 캠퍼스 중장기 공간 마스터플랜 위원회가 결성돼 캠퍼스 전체의 대대적인 공간재배치와 활용 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계획이다. 교수, 관련 부서의 팀장 등으로 구성된 공간 마스터플랜 위원회의 결성은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계획이며 위원회 내부의 논의 과정을 거쳐 캠퍼스 전체 공간과 관련한 시설계획이 세워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기획취재면)



우리도 새내기 ... 2005학년도 입학식이 지난 23일 만해광장에서 진행됐다. 입학식장에서 만나는 새내기 스님의 미소가 풍경만큼이나 풋풋하다. 황수상 기자 hjs0228@dongguk.edu

본사 신임 주간교수 본사 신임 부주간교수 본사 신임 국장



본사 주간에 윤재용(국어교육)교수가 임명됐다. 신임 윤재용 주간은 본교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2003년 본교에 부임했다.



본사 경주캠퍼스 부주간에 장성재(철학)교수가 임명됐다. 신임 장성재 부주간은 본교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92년도에 본교에 부임했다.



신임 정경훈 국장은 본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87년 본교에 부임해 영산대학원 등에서 근무했다.

박영석 동문, 북극점 도전

산악 그랜드슬램 대장정 올라

박영석(체교 91졸)동문이 지난 24일 산악 그랜드슬램 마지막 관문인 북극점 정복을 위한 원정을 떠났다. 산악 그랜드 슬램이란 히말라야의 8,000m 이상 최고봉 14개와 세계 7대륙의 최고봉, 그리고 남극점과 북극점을 모두 등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북극점 원정대는 박영석 동문을 비롯해 총 6명의 대원으로 구

성됐으며 이들은 60여일간의 대장정에 오른다.

박영석 동문은 지난 2003년 5월 북극점 정복을 눈앞에 두고 이상한파로 인해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영석 동문은 "실패이상의 교훈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기어오라도 북극점을 등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본사 사령

- ◇ 임기만료
 - ▲편집장=최성민(사과대 경제4)
- ◇ 신임부장
 - ▲편집장=황수상(불교대 인철3)
 - ▲대학부장=김지희(사과대 사학3)
 - ▲기획부장=김지은(사과대 신병3)
 - ▲문화부장=최민희(사과대 신병3)
- ◇ 면 기자
 - ▲정기자=설윤진(사과대 행정3)

- 이상 2월 28일자

본교 인사 발령

본교는 지난 1월과 2월에 대폭적인 교원·직원 인사를 단행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 △부총장=김병식(생명·화학)

공학) △대학원장=서윤길(불교학) △영산대학원장=민병록(영화영상학) △불교대학원장=조용길(불교학) △행정대학원장 겸 사회과학대학장=김보환(경찰행정학) ▶2면으로 이어짐

동대신문 기획광고

영화감독 임권택 1329호

시인 문정희 1387호

소설가 조정래 1387호

국회의원 유시민 1378호

인문인 황세화 1364호

시인 신경림 950호

연극연출가 전훈 1381호

PD 김재형 1225호

영어강사 이근철 1391호

개그맨 전유성 1368호

신악인 박영선 1400호

아나운서 이카데미 원장 성연미 1398호

발전기금 060-700-0119

당신의 무한한 꿈 무한한 능력 무한한 만남 동대신문사에서 찾으십시오

동대신문사 47기 수습기자 모집

모집인원 : 〇〇명
 응시자격 : 1학년 재학생
 원서접수 : 3월 17일까지
 전형일시 : 3월 16일, 17일
 원서교부 : 중앙도서관 옆 V동 1층 동대신문사 사무실
 문 의 : E-mail dgupress@dongguk.edu
 Tel 02)2260-3491 ~ 2

동대신문사

일산불교병원 5월 시범개원 예정

제207차 이사회 2005학년도 예산안 승인

정관변경, 학칙변경 등 안전 통과

일산불교병원 개원에 따른 예산 1,132억을 포함해 올해 동국대 각급 기관 예산 총 4,242억을 승인한 제207차 이사회가 지난 18일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열렸다. 동국대는 올 한해 긴축재정 방침을 세워 동국대학교 예산은 2,011억으로 지난해에 비해 7억원정도 감소했지만 새로 개원하는 일산불교병원에 430억원의 예산이 추가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해 3,969억원에 비해 273억원 가량 늘어났다. 한편 일산불교병원에는 오는 5월 시범개원할 예정이다.

이런 이사회에서는 이 외에도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정관시행세칙 개정 및 관련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등 총 13가지의 안건이 처리됐다. 정관 변경 내용은 교법사도 보직 교사와 마찬가지로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을 명시화한 것이며 학칙 변경의 내용은 △정관개정에 따른 직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변경 △정부의 대학자율화정책에 따라 교원 소속의 원칙을 부속교육기관과 부설 연구기관까지 확대 △재학연한을 '6년(12학기)'으로 제한, 성적 경고 기준을 '2.0미만'으로, 성적경고에 의한 제적기준을 '통산3회'로 변경하였다.

또한 교원인사와 관련해서는 전경시대 행정대학원장 이윤호(경찰행정), 영화제작자 차승재(영상대학원), 희극작가 이만희(문예창작과) 등 전문인들을 특별초빙 교수로 임용하고 정원 외로 분류했던 외국인 교수 22명도 신입교원으로 전환해 교원 확보율을 높였다. 한편, 경주캠퍼스와 경주병원 사이에 위치한 땅 4,900여평 매입 승인에 관한 사항과 일산병원을 짓고 남은 교육용 기본재산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하는 사항도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gu.edu

행정조직개편 진행 과정과 추이

직제개편 지연으로 업무차질 우려

의견수렴 부족도 문제로 지적

행정조직개편이 예정보다 한 달 정도 늦은 지난 15일 단행되었다. 이에 따라 급격한 업무변동과 더불어 공간이동으로 혼란이 야기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조직개편이 예정보다 늦어진 이유는 11월 이사회에서 의원 정족수 미달로 행정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해 1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조직개편안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사발령과 행정조직개편안에 따른 공간재배치도 함께 연기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동국관을 비

롯한 몇 몇 건물의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일부 부서의 업무 정상화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행정조직개편은 의견수렴의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직원노조의 요구에 따라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열었지만 의견수렴의 장이었다기보다는 일방적인 통보성이 강한 자리였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조직개편시 업무분장내용, 업무이관사항이나 업무위임내용, 인력운영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직원노조로부터 비판받았다. 교수회(회장=염준근·통계학) 역시 이번 행정조직개편과 대학

(원)중심 행정에 이견을 나타냈다. 현재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사무분장은 완료됐으며 위임전결규정 작업을 진행 중이고 연간운영정원은 법인의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내 구성원들도 이미 행정조직개편이 확정돼 시행되고 있는 만큼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 해 동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한편 직원노조는 다음 학기 정도에 이번 행정조직개편 결과 평가에 대한 교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불 계획임을 밝혔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gu.edu

임영정 교수 1천원 도서 기증

지난 22일 정년퇴임한 임영정(역사교육) 교수가 중앙도서관(관장=정진환·교육학)에 1천여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기증된 도서는 임교수가 평소 연구실에 소장하고 있던 역사관련 자료로 조선왕조실록 외 다수의 고서가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임영정 교수는 "퇴임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서를 남기고 떠나고 싶어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어 패스제 54명 탈락

200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학위 수여 대상자인 학부생 중 총 54명이 영어 패스제에 탈락, 졸업이 다음 학위수여식으로 연기됐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이 미뤄진 학생은 2005학년도 1학기 6월부터 외부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언어연구교육원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학교에서 실시하는 토익 시험에 응시한 학생의 경우는 별도의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자는 돌아오는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이 가능하다.

신국주 전 총장 관련 판결

'동국대학교 90년지'에 기재한 신국주 전 총장에 대한 허위, 왜곡 서술로 인하여 신국주 전 총장이 입은 명예훼손에 대하여 간행위원장 송석규, 편집위원장 목정배, 편집위원 임영정을 상대로 신국주 전 총장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대로 원고 신국주 전 총장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고 송석규, 동국학원, 목정배, 임영정은 각자 15,000,000원을 지급하고 판결문을 동국대학교 총장 발행의 동대신문에 게재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공간 격정도 '썩썩' ... 구중앙도서관이 지난 23일 만해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동안 공사지연으로 학내 공간문제의 결림들이 되었지만 새학기 부터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황주상 기자 hjs228@dongguk.edu

필동테니스장 4천 4백여평 매입

교지부족 해결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

우리학교가 지난해 12월 27일 총부지 4,381평에 달하는 필동 테니스장을 매입했다. 필동테니스장 매입은 교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60년대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니스장 3면이 들어서 있다. 이번 필동테니스장 매입으로 우리학교는 지난해 2월에 구입한 필동병원과 함께 전체 교지의 16%에 해당하는 약 6,000여평(건평포함 약 1만여평)의 교지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현재 공사중인 원흥빌딩과 중앙도서관 사이 계단이 완공되면 총무로 쪽으로의 통행 또한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필동테니스장은 당분간 그

대로 사용되고 이번 행정조직개편에 의한 공간재배치에 따라 역경원, 출판부, 불교문화연구원이 사무동으로 이전했다. 장기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캠퍼스 마스터플랜위원회에서 논의, 확정할 예정이다.

등록금 납부 기간 연장

대상 : 서울캠퍼스 학부 및 대학원
수납기간 : 2005. 3. 4 까지
장소 : 제일, 조흥, 농협 전국 지점 수납

200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열려

서울캠 박사 87명 석사 561명 학사 2,380명 배출

2004학년도 서울캠퍼스 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18일 오전 11시 중앙강당에서 열렸다.

김현해 이사장, 홍기삼(국어국문학) 총장, 류주형 총동맹회장을 비롯한 1,000여명의 사람들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학위수여식은 △삼귀의례 △학사보고 △총장식사 △이사장 치사 △총동맹회장 축사 △상장 수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박사 87명, 일반대학원 석사 258명, 특수대학원 석사 303명, 학사 2,380명으로 총 3,028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사장 공로상은 박진주(일어일문4) 양, 조계종 총무원장 상은 전 유진(인도철4) 양, 총장 공로상은 정운택(법4) 군을 비롯한 8명이 받았다. 또한 이용복(경영(야)) 씨는 특별상을 수상했다.

각 단과대별 수석 졸업자는 △불교대=이경이(불교, 4.23) △문과대=김지희(국어국문, 4.32) △이과대=장현우(생물, 4.28) △법과대=여해란(법, 3.99) △사회과학대=김국인(정치외교, 4.21) △경영대=이재환(국제통상, 4.24) △생명자원과학

대=이정빈(식품공학, 4.18) △공과대=정영호(전자공학, 4.25) △정보산업대=채영현(컴퓨터공학, 4.28) △사법대=이원희(체육교육, 4.09) △예술대=추연창(연극, 4.04) △야간강좌=김규환(경영, 4.31)이다. 한편, 전체수석은 지난 14일 학생상발위원회 회의의 결과에 따라 폐지됐다. 또한 2005학년도 서울캠퍼스 입학식이 지난 23일 오전 11시 만해광장에서 신입생과 가족들을 비롯한 3,0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입학식은 △삼귀의례 △국민의례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선서 △총장 식사 △이사장 치사 △사홍서원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같은 날 오후에는 장충체육관에서 전체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농협 관리자 대상 '고급경영자 과정' 개설

국내 최초, 맞춤형 교육 실시

오는 3월부터 국내 최초로 맞춤형 교육이 실시된다.

우리학교(총장=홍기삼) 경영대학원(총장=정대근)은 지난 달 말,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김태홍 전 경영대학원장, 정장근 전 교학부장, 권달을 농협중앙회 인력개발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급경영자과정' 위탁교육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농협에서 경영대학원에 위탁하는 관리직급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한 학기 20주 교육기간으로 실시되는 이번 고급경영자과정은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경영의식과 첨단기법을 집중 교육함으로써 고급경영자의 능력과 리더십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영대학원은 전용 강의실 등 편의시설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며 농협과 협의해 각 교과목에 대한 교재 및 학습 자료를 마련하였다.

교육과정은 △e-비즈니스의 이해 등 기본강좌 59개 △조직인사와 관련된 기본관리 등 기초 및 심화강좌 52개 △재무금융 분야의 신용실제 등 기초 및 심화강좌 81개 △마케팅 유통분야의 전략적 브랜드 관리 등 기초 및 심화강좌 34개 △특강강좌 46개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총 374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다. 입학식은 3월 2일 오후 3시 거행될 예정이다.

영상정보통신대학원, 영상대학원으로 개칭

인문학과 산업이 만나는 문화콘텐츠학과 신설

영상정보통신대학원이 특성화를 목표로 지난해 12월 15일 영상대학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와 더불어 인문학과 산업이 만나는 문화콘텐츠학과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으로 구조를 개편했다.

문화콘텐츠학과는 영상문화벨트의 허브로 성장시키고자 새롭게 신설되었으며, 디지털 테크놀로지 영상의 미학을 추구하는 영화영상학과, 디지털정보기술을 바탕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창출하는 멀티미디어학과의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하였다.

이를 통해 인문학과 예술, 그리고 공학이 만남으로써 가능한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기대된다. 한편, 영화영상제작학과를 영화

영상학과로 명칭 변경하고 네트워크관리학과는 폐지됐다.

영상대학원 민병욱 원장은 이와 관련해 "HD 최첨단시설의 확보와 중국 북경대 등 외국 명문 대학과의 교류, 일본 소니사 등 국내외 우수 기업과의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세계적인 대학원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협, 출자금과 배당금 지급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2004학년도 전기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출자금과 배당금을 지급한다. 지급 내용은 출자금 1만원과 10%의 배당금을 합친 총 금액 1만 1천원이다.

▶ 1면에서 이어짐

△경영대학원장 겸 경영대학장=한진수(회계학) △교무대학원장=한용환(교육학) △언론정보대학원장 겸 국제정보대학원장=박근호(행정학) △산업대학원장 겸 공과대학장 겸 정보산업대학장=전영일(건축공학) △문화예술대학원장 겸 예술대학장=홍신선(문예창작학) △문과대학장=박종훈(윤리문화학) △이과대학장=송희자(수학) △생명자원과학대학장=이명훈(식물자원학) △기획처장=유석천(경영학) △대의협력처장 겸 건축100주년기념사업회 분부장=이관제(통계학) △정각원장=이영호 △교무처장=이상일(토목환경공학)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조성구(산업시스템공학) △학생처장=조의연(영어영문학) △총무처장=백경선 △제3캠퍼스 건립추진단 건설본부장=하정운 △비서실장=장은 △중앙도서관장=정진환(교육학) △정보관리실장=김인재(정보관리학) △교양교육원장=황종연(국어국문학) △국제교육원장 겸 국제교류실장=김영민(영어영문학) △사회교육원장=유광진(정치외교학) △국제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장 겸 한국어센터장=김영민(영어영문학) △교수학습개발센터장=박명희(가정교육) △학생상담센터장 겸 학생처 취업지원센터장=조의연(영어영문학) △보건의조장=임성우(한의

학) △실협농장장=이명훈(식물자원학) △기속사관장=박문기(선학) △체육관장=선상규 △체육실장=차준환 △동대신문사 편집인겸 주간=윤재웅(국어교육) △동대신문사 부주간(동국포스트)=김애주(영어영문학) △산학협력단 장업지원단장=임준연(기계공학) △산학협력단 산학기술협력센터장 겸 산업기술연구원장=이종태(산업시스템공학) △공과교육연구센터장=전영일(건축공학) △기획처 인사관리팀장=안형택(경제학) △홍보실장=곽대경(경찰행정학) △연구처 연구개발팀장=박명호(정치외교학) △대학원 행정지원실장=유국현(화학) △행정대학원 및 사회과학대학 통합 행정지원실장=최대석(북한학) △경영대학원 및 경영대학 통합 행정지원실장=이영민(경영학) △법인사무처 총무부장=김계현 △기획처 기획예산팀장=김윤길 △기획처 참가평가팀장=박준서 △대의협력처 대외협력실장=윤동규 △대의협력처 대외협력담당관=황래열 · 신관호 · 나병욱 △제3캠퍼스 건립추진단 기획팀장 겸 건설실장=박동수 △건축100주년기념사업회 기념사업팀장=김영진 △교무처 교무기획팀장=박상관 △학생처 학생복지실장=이성진 △학생처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장=손재영 △총무처 총무팀장=김성근 △총무처 시설관리팀장=박정

훈 △총무처 재무회계팀장=박환오 △총무처 구매팀장=문용주 △영상대학원 행정지원실장=김종백 △불교대학원 및 불교대학 통합행정지원실장=김철호 △언론정보대학원 및 국제정보대학원 통합행정지원실장=오광진 △산업대학원 및 정보산업대학 통합행정지원실장=안재봉 △교양교육원 행정지원실장=박승중 △사회교육원 행정지원실장=황우열 △산학협력단 행정지원부장=김영인 △기획처 기획예산팀=김태식 · 유광호 · 전병건 · 변승재 · 박종혁 △기획처 심사평가팀=박래호 · 박정순 · 허부강 △기획처 인사관리팀=임조경 · 양성웅 △대의협력처 홍보실=김병호 · 김영민 △대의협력처 대외협력실=박희상 · 김효정 · 신지형 △건축100주년기념사업회 기념사업팀=양윤정 △정각원=강지연 △교무처 연구개발팀=정병경 △연구처 산학연구지원팀 산학협력단 행정지원실=이창학 · 유진 · 차승현 · 조윤성 △학생처 학생복지실=조성문 · 류변성 △학생처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조성환 △학생처 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팀=김홍모 △총무처 총무팀=이성이 △총무처 재무회계팀=박만규 · 강은희 △총무처 구

매팀=황병걸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안상호 △정보관리실 정보시스템관리팀=문상국 △정보관리실 정보지원관리팀=김종기 · 김형배 △대학원 행정지원실=김종성 · 이정숙 △영상대학원 교학부=허광도 · 권혁자 △불교대학원 및 불교대학 통합행정지원실=하미애 △행정대학원 및 사회과학대학 통합행정지원실=황의돈 · 박노경 △경영대학원 및 경영대학 통합행정지원실=송민수 △언론정보대학원 및 국제정보대학원 통합행정지원실=김영수 · 정옥자 △산업대학원 및 정보산업대학 통합행정지원실=장동미 △총무처 총무팀=유한림 △문화예술대학원 및 예술대학 통합행정지원실=김종호 · 김옥자 △문과대학 행정지원실=한경관 △생명자원과학대학 행정지원실=서정옥 △공과대학 행정지원실=김옥련 △사법대학 행정지원실=최광제 · 안미숙 △야간강좌 행정지원실=송중수 · 장금숙 △교양교육원 행정지원실=김영훈 · 조의성 △국제교육원 국제교류실=원홍희 · 이란영 △사회교육원 행정지원실=이희성 · 이상원 △교수학습개발센터=박세훈 △체육실 체육부=권우성 △출판부=김두재 △동대신문사=정경훈 △중구 총무아트홀 체육시설 운영본부 파견=김준호 · 신병배 △실협농장 관리과 겸임근무=이동희

▲경주캠퍼스

△부총장=김영길(불교학) △불교문화대학원장=이봉춘(불교학) △사회과학대학원장 겸 법정책대학장=김영종(행정학) △인문과학대학장=김용택(사회복지학) △자연과학대학장 겸 공학대학장=이태경(컴퓨터·멀티미디어학) △상경대학장=김종규 △대학장=조창욱(경영학) △기획처장=홍광표(조경학) △학생처장 겸 학생상담센터장 겸 취업지원센터장=김의창(전자상거래학) △총무처장=서병수 △기획처 연구지원실장=남경수(의학) △교무처 교양교육운영실장=김홍희(행정학) △정보관리실장=심규박(정보통계학) △여학생실장=조애숙(일어일문학) △국제교육원장=신승운(영어영문학) △교수학습개발센터장=장인철(철학) △금강생활관장=최원상(생명공학) △동대신문사부주간 겸 교육방송국장=장성제(철학) △기획처 대외협력실장=신태용 △교무처 교무기획팀장=안석호 △교무처 학사지원실장=황주환 △교무처 학생선발실장=김영수 △학생처 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팀장=이진희 △학생처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장=문재욱 △총무처 시설관리팀장=송익균 △정보관리실 정보시스템관리팀장=박정우 △불교문화대학원 및 불교문화대학 통합행정지원실

장=석광열 △상경대학 및 관공대학 및 야간강좌 통합행정지원실장=박두관 △한의과대학 행정지원실장=한대호 △사회문화교육원 행정지원실장=주재권 △금강생활관 관리팀장=이건배 △산학협력단 행정지원부장=이상기 △기획처 기획예산팀장=박용하 △기획처 기획예산팀=김경표 △기획처 대외협력실=김종규 · 한병모 · 권현철 △기획처 연구교류실=양진영 △기획처 연구지원실=김영기 · 신승우 · 박재환 △교무처 교무기획팀=김남이 · 권희배 · 이진형 △학생처 학생복지실=최현희 △학생처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차교성 △총무처 시설관리팀=김성규 △불교문화대학원 및 불교문화대학 통합행정지원실=최여욱 △상경대학 · 관공대학 · 야간강좌 통합행정지원실=정문환 △의과대학 행정지원실=임종민

▲의료원

△의료원장=이석연(의학) △한의과대학 부속 서울강남한방병원장=이원철(한의학) △한의과대학 부속 분당한방병원장=김경호(한의학) △일산 불교병원 총무팀장=강형석

공간 부족...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강의실 · 연구실 확충으로 교육 여건 개선 전망

의사소통 부족으로 일부 단과대 학생회 반발

그동안 부족한 강의실, 교수 연구실 등으로 골치를 앓아 왔던 학내 공간 문제가 학교 측의 중장기 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점차 속통이 트일 전망이다.

중대 필동 병원 매입에 이어 4,400평 규모의 필동 테니스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약 6,000여 평의 교지를 확보하게 돼 전체적으로 여유 공간을 마련하게 된 것이 그 이유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업체 선정 문제로 지연돼 오던 구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역시 종결됨에 따라 학내 공간 문제 해소와 관련한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계획이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현재 캠퍼스 중앙기 공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교수, 직원들로 구성된 마스터플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에 대한 활발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동국관 등 단기 공간 재배치 활발

먼저 학교 측이 구상 중인 단기 공간 재배치 안에 따르면 3월 개강 전에 구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완료에 따른 공간을 배치,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15일 학내 대대적인 행정조직 개편이 새롭게 이뤄짐에 따라 본관에 있는 일부 부서 역시 공간이 재배치된다.

한편 부족한 교수연구실, 강의실 등의 확충을 위해 그동안 별도로 운영되던 학부와 대학원 행정 지원실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지난 23일 준공식을 갖고 만해관으로 이름이 새롭게 변경된 구도서관으로 도서관 열람실, 불교대학원 · 불교대, 법대가 이전해 오면서 부족했던 강의실, 교수 연구실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된다.

중에 위치하고 있던 사회과학대 학생회실은 L동 2층으로 이전된다. 또한 법과대와 사회과학대 학생회실의 공간은 사회과학대 · 행정대학원 통합 행정 지원실로 변경되며 경영대 · 경영대학원 통합 행정실은 L동 2층에 위치하게 된다. 한편 M동 4층 사회과학대, 경영대, 야간강좌 총학생회의 각 학과실이 전체적으로 이동함에 따라 앞으로 그 공간은 그동안 부족했던 사회과학대 학생들을 위한 강의실로 이용될 계획이다.

이런 동국관의 공간 배치와 관련해 기획예산팀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인 목표로 동국관 건물의 전체적인 배치를 L동은 경영대 학생을 위한 경영관, M동은 사회과학관으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동국관 내의 사회과학대, 경영대와 관련된 공간들의 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관 3층 기존 불교대 학생들의 공간은 교수 연구실, 대각전 사무실, 대형 강의실 등으로 이용될 계획이다.

또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3층에 위치한 취업지원팀이 취업지원센터로 승격돼 본관 2층으로 이전되는 등 본관의 세부 부서들의 공간 변동도 지속될 계획이다.

중 · 장기 공간재배치 계획 수립

단기적인 공간 조정뿐만 아니라 이번 주안으로 캠퍼스 마스터플랜 위원회가 구축되면 본격적인 학교 내 · 외부의 공간 배치에 대한 조정, 계획안이 수립될 전망이다. 또한 수립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5월 개교 99주년 기념일에 대대적인 학교 전반의 중장기 공간 배치 계획안이 발표될 것이다.

먼저 필동 병원 공간의 경우는 오는 5월 이내에 단기 활용 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부분 리모델링 공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로써 2005학년도 2학기 중으로는 필동 병원 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현재 배정된 공간으로는 △영양영상학과 포스트 하우스 △기능성 폴리이드센터 △창업지원단 △영양연구원 등이 있다. 또한 지난해 매입한 필동 테니스장의 경우는

앞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출판부 △역경원 △불교문화연구원 등이 이전할 계획이다. 학교 측에서는 이번 대대적인 공간 재배치를 통해 약 600평가량의 신규 교육 · 연구 공간을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각 건물의 층별 공간 용도를 단일화시켜 공간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이라는 효과 역시 기대되고 있다.

학생들과의 논의 배제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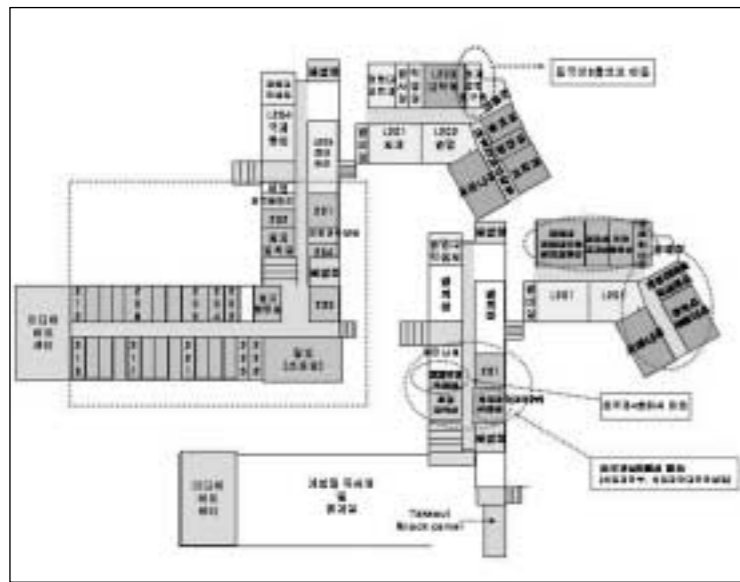
한편 실시되고 있는 공간 재배치 조정과 관련해 학교 측과 일부 단과대 사이에서 마찰이 불거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는 이번 공간 재배치에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생회실, 학과실, 세미나실 등이 이전되거나 축소됨에도 사전에 이와 관련해 학생들과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것이다. 사회학과 학생회실의 경우 현재 학교측에서 폐쇄하기로 결정한 사회학과 세미나실 출입구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재성화(사회3) 사회학과 학생회장은 "사회학과와 경영대의 경우 학과 특성상 소규모의 세미나 공간의 활용이 필요한데 학교 측에서는 이러한 학과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간 배치를 진행하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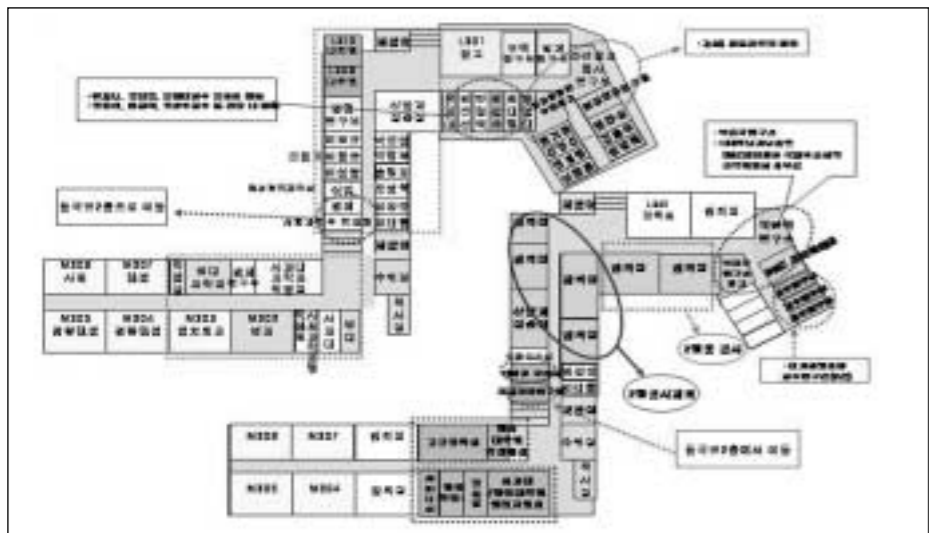
또한 야간 경제학과 학생회실의 경우도 야간강좌 주간 전환시 각 학과 학생회실의 경우는 확보해 주겠다는 학교 측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번 공간 배치에서 폐쇄될 방침이어서 해당 단과대 학생회에서는 이에 대해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대응에 대해 학생들의 이용공간인 강의실, 연구실 등을 확충하기 위한 진행인 만큼 협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개강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 앞으로 학교 측의 공간 재배치 계획에 있어 학생들의 반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 동국관 2층 공간 조정안



▲ 동국관 3층 공간 조정안

사설

동국발전, 한마음이 우선이다

건학 100주년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어느 대학이나 때가 되면 맞이하는 시간이지만 이를 계기로 재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동국구성원 역할의 막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대학 경쟁력 강화와 공간 확충 그리고 건학 100주년 맞이 등 중대한 사업이 있는 만큼 풍성한 동국을 만들기 위한 구성원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학교는 이전부터 대학 경쟁력 부분에서 공간 문제라는 '아킬레스건'을 때어 놓을 수 없었다. 이에 최근 충무로관 확보와 필동 테니스장 매입 등으로 전체 교지의 16%에 해당하는 약 1만여평(건평포함)의 교지를 확보해 공간부족 문제에 다소 활로를 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3일 '2005 동국발전방향 설명회'를 통해 대대적으로 동국의 현황과 목표를 설정한 것 역시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 대학의 내실화, 물론 중요하다. '과연 동국 100주년을 학내 3주체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져보자. 지금 우리는 동국 건학 100주년을 맞이하기 위한 동약의 한창 무르익은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다.

교수는 강의, 직원은 행정, 학생은 학업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를 '한마음'으로 한 데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학 100주년 분위 조성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0주년 기념관' 인터뷰어를 교수와 학생에게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 혹은 100주년 기념 미술대회 개최도 생각할 수 있다. 동국발전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학내구성원 모두의 역할과 과제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구성원 모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강조했듯이 우리는 동국발전의 발판을 한마음으로 함께 만들어야 한다. 이를 준비하는 주체는 교수이고 직원이며 학생 그리고 동문이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김주관
부편집장 김성재
편집장 정경훈
편집장 황주상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 (02)2260-3491 · 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성동 707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68 팩스 (054)770-2067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및 동국대학교 예산 공고

(2005회계년도 : 2005. 3. 1 ~ 2006. 2. 28)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6조 제4항에 의거 2005학년도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2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김창석
동국대학교 총장 홍기삼

법인일반회계 자금예산서 (단위:백만원)			학교비 자금예산서 (단위:백만원)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서 (단위:백만원)			수익사업회계 자금예산서 (단위:백만원)		
과목	예산액	지출액	과목	예산액	지출액	과목	예산액	지출액	과목	예산액	지출액
1. 원가자금수입	10,444	10,473	1. 원가자금수입	198,809	201,109	1. 원가자금수입	177,876	178,753	1. 원가자금수입	3,984	3,982
1. 전입자금수입	9,804	262	1. 동국공수입	160,444	93,944	1. 의료수입	97,497	109,707	1. 원가자금수입	109,707	1,791
① 대학기부금수입	700	62	1) 교육수입	155,850	68,638	1) 의료수입	53,519	54,235	1) 사업수입	1,791	648
② 대학기부금수입	700	149	2) 장학수입	5,109	25,306	2) 의료수입	39,531	50,838	2) 사업수입	3,788	141
2) 기부금수입	9,104	33	3) 기금수입	150,541	21,774	3) 의료수입	4,447	2,015	3) 사업수입	2	475
① 일반기부금수입	8,904	11	1) 사업수입	7,254	4,794	4. 기타수입	17,122	2,101	4) 사업수입	65	85
② 지원기부금수입	200	22	2) 수강료수입	4,794	2,114	1) 기부금수입	210	28,248	5) 기타수입	91	91
3. 교육기부금수입	587	5	3) 기부금수입	4,794	1,344	2) 기부금수입	491	16,880	6) 기타수입	100	234
1) 후원기부금수입	195	5	4) 기부금수입	21,550	222	3) 기부금수입	7,500	10,329	7) 기타수입	260	260
2) 수탁기부금수입	391	16	5) 기부금수입	17,759	65	4) 기부금수입	491	1,039	8) 기타수입	24	24
3) 후원기부금수입	390	176	6) 기부금수입	2,000	3,050	5) 기부금수입	51	27,224	9) 기타수입	19	19
4) 후원기부금수입	1	1	7) 기부금수입	4,162	113	6) 기부금수입	1,790	1,790	10) 기타수입	6	6
5) 후원기부금수입	1	1	8) 기부금수입	3,000	304	7) 기부금수입	129	306	11) 기타수입	200	200
6) 후원기부금수입	1	4	9) 기부금수입	4,647	42	8) 기부금수입	6,702	282	12) 기타수입	58	58
7) 후원기부금수입	1	23	10) 기부금수입	3,950	6,188	9) 기부금수입	6,702	282	13) 기타수입	2	2
8) 후원기부금수입	1	86	11) 기부금수입	2,091	380	10) 기부금수입	6,702	282	14) 기타수입	7	7
9) 후원기부금수입	1	2	12) 기부금수입	2,091	119	11) 기부금수입	6,702	282	15) 기타수입	103	103
10) 후원기부금수입	1	2	13) 기부금수입	2,091	309	12) 기부금수입	6,702	282	16) 기타수입	8	8
11) 후원기부금수입	1	8	14) 기부금수입	2,091	2,090	13) 기부금수입	6,702	282	17) 기타수입	15	15
12) 후원기부금수입	1	23	15) 기부금수입	2,091	834	14) 기부금수입	6,702	282	18) 기타수입	19	19
13) 후원기부금수입	1	7	16) 기부금수입	2,091	2,584	15) 기부금수입	6,702	282	19) 기타수입	51	51
14) 후원기부금수입	1	5	17) 기부금수입	2,091	858	16) 기부금수입	6,702	282	20) 기타수입	163	163
15) 후원기부금수입	1	171	18) 기부금수입	2,091	396	17) 기부금수입	6,702	282	21) 기타수입	392	392
16) 후원기부금수입	1	11	19) 기부금수입	2,091	415	18) 기부금수입	6,702	282	22) 기타수입	2	2
17) 후원기부금수입	1	76	20) 기부금수입	2,091	8,332	19) 기부금수입	6,702	282	23) 기타수입	7	7
18) 후원기부금수입	1	29	21) 기부금수입	2,091	3,677	20) 기부금수입	6,702	282	24) 기타수입	245	245
19) 후원기부금수입	1	35	22) 기부금수입	2,091	332	21) 기부금수입	6,702	282	25) 기타수입	2	2
20) 후원기부금수입	1	3	23) 기부금수입	2,091	105	22) 기부금수입	6,702	282	26) 기타수입	637	637
21) 후원기부금수입	1	1	24) 기부금수입	2,091	230	23) 기부금수입	6,702	282	27) 기타수입	19	19
22) 후원기부금수입	1	1	25) 기부금수입	2,091	332	24) 기부금수입	6,702	282	28) 기타수입	51	51
23) 후원기부금수입	1	1	26) 기부금수입	2,091	148	25) 기부금수입	6,702	282	29) 기타수입	163	163
24) 후원기부금수입	1	1	27) 기부금수입	2,091	251	26) 기부금수입	6,702	282	30) 기타수입	392	392
25) 후원기부금수입	1	1	28) 기부금수입	2,091	928	27) 기부금수입	6,702	282	31) 기타수입	2	2
26) 후원기부금수입	1	1	29) 기부금수입	2,091	39	28) 기부금수입	6,702	282	32) 기타수입	7	7
27) 후원기부금수입	1	1	30) 기부금수입	2,091	1,677	29) 기부금수입	6,702	282	33) 기타수입	98	98
28) 후원기부금수입	1	1	31) 기부금수입	2,091	488	30) 기부금수입	6,702	282	34) 기타수입	2	2
29) 후원기부금수입	1	1	32) 기부금수입	2,091	2,594	31) 기부금수입	6,702	282	35) 기타수입	6	6
30) 후원기부금수입	1	1	33) 기부금수입	2,091	792	32) 기부금수입	6,702	282	36) 기타수입	60	60
31) 후원기부금수입	1	1	34) 기부금수입	2,091	47,051	33) 기부금수입	6,702	282	37) 기타수입	60	60
32) 후원기부금수입	1	1	35) 기부금수입	2,091	11,269	34) 기부금수입	6,702	282	38) 기타수입	56	56
33) 후원기부금수입	1	1	36) 기부금수입	2,091	10,077	35) 기부금수입	6,702	282	39) 기타수입	5	5
34) 후원기부금수입	1	1	37) 기부금수입	2,091	574	36) 기부금수입	6,702	282	40) 기타수입	51	51
35) 후원기부금수입	1	1	38) 기부금수입	2,091	574	37) 기부금수입	6,702	282	41) 기타수입	10	10
36) 후원기부금수입	1	1	39) 기부금수입	2,091	73	38) 기부금수입	6,702	282	42) 기타수입	39	39
37) 후원기부금수입	1	1	40) 기부금수입	2,091	419	39) 기부금수입	6,702	282	43) 기타수입	98	98
38) 후원기부금수입	1	1	41) 기부금수입	2,091	959	40) 기부금수입	6,702	282	44) 기타수입	2	2
39) 후원기부금수입	1	1	42) 기부금수입	2,091	959	41) 기부금수입	6,702	282	45) 기타수입	51	51
40) 후원기부금수입	1	1	43) 기부금수입	2,091	959	42) 기부금수입	6,702	282	46) 기타수입	51	51
41) 후원기부금수입	1	1	44) 기부금수입	2,091	959	43) 기부금수입	6,702	282	47) 기타수입	51	51
42) 후원기부금수입	1	1	45) 기부금수입	2,091	959	44) 기부금수입	6,702	282	48) 기타수입	51	51
43) 후원기부금수입	1	1	46) 기부금수입	2,091	959	45) 기부금수입	6,702	282	49) 기타수입	51	51
44) 후원기부금수입	1	1	47) 기부금수입	2,091	959	46) 기부금수입	6,702	282	50) 기타수입	51	51
45) 후원기부금수입	1	1	48) 기부금수입	2,091	959	47) 기부금수입	6,702	282	51) 기타수입	51	51
46) 후원기부금수입	1	1	49) 기부금수입	2,091	959	48) 기부금수입	6,702	282	52) 기타수입	51	51
47) 후원기부금수입	1	1	50) 기부금수입	2,091	959	49) 기부금수입	6,702	282	53) 기타수입	51	51
48) 후원기부금수입	1	1	51) 기부금수입	2,091	959	50) 기부금수입	6,702	282	54) 기타수입	51	51
49) 후원기부금수입	1	1	52) 기부금수입	2,091	959	51) 기부금수입	6,702	282	55) 기타수입	51	51
50) 후원기부금수입	1	1	53) 기부금수입	2,091	959	52) 기부금수입	6,702	282	56) 기타수입	51	51
51) 후원기부금수입	1	1	54) 기부금수입	2,091	959	53) 기부금수입	6,702	282	57) 기타수입	51	51
52) 후원기부금수입	1	1	55) 기부금수입	2,091	959	54) 기부금수입	6,702	282	58) 기타수입	51	51
53) 후원기부금수입	1	1	56) 기부금수입	2,091	959	55) 기부금수입	6,702	282	59) 기타수입	51	51
54) 후원기부금수입	1	1	57) 기부금수입	2,091	959	56) 기부금수입	6,702	282	60) 기타수입	51	51
55) 후원기부금수입	1	1	58) 기부금수입	2,091	959	57) 기부금수입	6,702	282	61) 기타수입	51	51
56) 후원기부금수입	1	1	59) 기부금수입	2,091	959	58) 기부금수입	6,702	282	62) 기타수입	51	



지령 1400호 기념 홍기삼 총장 인터뷰

“조직개편 통해 제반여건 개선할 것”

= 14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 축하는 1400호가 지속되기까지 참여한 학생기자, 이를 지도해 준 선배 언론인, 그리고 교수와 직원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말이다. 앞으로 전학 100주년을 앞두고 대학 중흥을 위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구성원들의 힘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견인차 구실을 해주길 바란다.

- 개강을 맞이하여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곧 100주년이다. 이 중요한 시기를 의미 있게 보내려면 선배 세대가 만들어 놓은 대학의 전통을 잘 개선해야 한다. 우리 학교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두 번이나 강제 폐교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 했음에도 민족 자주교육을 일으키려는 선각자들의 끊임 없는 노력과 희생으로 발전해 왔다. 쓰라린 경험을 딛고 각 분야에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인재들을 배출해 왔다는 긍지를 버려서는 안 된다.

주년을 지난 일을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꿈을 갖는 시기여야 한다. 실천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

- 100주년을 계기로 재도약할 수 있는 실천적인 운영 방안은.

= 조직개편을 통한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제반여건을 개선할 것이다.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를 분리, 그리고 의과대학과 병원을 하나로 묶을 생각이다. 캠퍼스 분리의 경우 올해까지 정관개정 등 준비기간을 갖고, 내년부터 완전 분리할 계획이다. 또한 불교대학과 불교대학원, 행정대학원과 사과대 등 7개 대학과 연계된 7개 대학원의 통합 행정실을 구축할 것이다. 불필요한 보직 숫자를 줄이며 공간 확보도 할 수 있다. 또한 본부에 집중된 결정권을 분권화 해 시공간의 절약과 행정직원의 절감을 유도한다.

성과급제도 또한 적극 추진할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동 진급이 아닌 능력이 서열을 결정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예컨대 연구 실적이 뛰어난 교수,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좋은 성과를 올리는 직원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보

상을 하려 한다.

- 가장 주력할 건학 100주년 사업은.

= 중국 마스터 플랜위원회라는 연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우선 교육시스템 선진화와 특성화 분야 중점 육성, 인프라 및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울 것이다. 특성화 분야를 보면 불교생태학, 영상문화콘텐츠(영상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교양 교육원 설립과 기초교육 활성을 통해 교양교육 분야를, 국제교육원 설립과 영어·중국어 강좌 확대를 통해 국제 교육 분야를 강화할 것이다.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과 평가시스템을 강화시킬 것이며 경주병원과 경주한방병원을, 의료원과 일산병원을 통합하고 병원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으로 경영을 안정화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올해는 내부혁신을 위해 구성원을 통합하고 2010년은 10대 명문사학, 2016년 3대 명문, 세계 100대 대학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주상 기자
hjs228@dongguk.edu

올해로 우리학교는 건학 99주년을 맞이한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내년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2016년에는 '세계 100대 명문사학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야심찬 포부를 갖고 있다.

- 지령 1400호를 맞이하여 축하인사 한다면.

대학이 만들어 놓은 대학의 전통을 잘 개선해야 한다. 우리 학교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두 번이나 강제 폐교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 했음에도 민족 자주교육을 일으키려는 선각자들의 끊임 없는 노력과 희생으로 발전해 왔다. 쓰라린 경험을 딛고 각 분야에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인재들을 배출해 왔다는 긍지를 버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100주년을 맞아 뒤돌아보면 역사에 걸맞는 발전을 하지 못했다. 우선 우리 동국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100

“교육시스템 선진화와 100주년 사업 가속화 계획”



보리수

대학 새내기들에게

붓다에게는 라훌라라는 친아들이 하나 있었다. 아버지가 왕위를 마다하고 출가하는 바람에 라훌라는 왕위계승 서열1위였다. 그런데 그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출가하였다.

“물을 떠 와서 내 발을 씻겨다오.” 그리고 발을 씻은 더러운 물을 사이에 두고 물었다.

“라훌라야,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없습니다.” 라훌라에게 물을 버리게 한 뒤에 다시 물었다. “너는 이 빈 그릇에 밥을 담을 수 있겠느냐?” “그 그릇에는 밥을 담을 수 없습니다. 더러운 물이 담겨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너도 이와 다르지 않다. 너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니다. 수행자의 몸가짐을 지니고 부지런히 수행해야 하는데 과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 더러워진 네 모습을 보아라. 그러다 너는 이 그릇처럼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이 되고 말리라.”

그나마 라훌라는 질책을 해준 붓다가 있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질책을 줄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공부하였고 음식과 투정이 먹혀들었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 온신을 박차고 나와 교재의 폭을 넓히고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한다.

이제 내가 알아서 공부하고 내가 알아서 찾아다녀야 한다. 내가 행동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장차 쓸모 있는 그릇이 될지 어떨지는 구태(舊態)를 얼마나 빨리 벗어버리느냐에 달렸다.

이 미령
역경원 연구원

퇴임교수 인터뷰

“학생들과 쌓은 정 무엇보다 소중한”



철학과 김항배 교수

“반평생을 함께 한 곳인데 그걸 어떻게 다 말할 표현 하겠나”

퇴임소감을 묻는 질문에 말보다는 표정으로 현재의 심정을 표현하는 교수가 있다. 교단을 지키는 30여년 동안 무엇보다 학생들의 전인적인 인격형성을 교육 목표로 삼았다는 항배 교수. 그런 그의 목표 때문인지 유난히도 제자들과의 정이 돈독하기로 유명한 김 교수를 만나 그간 학교생활과 퇴임 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40여년간 학교에 몰 담았는데.
= 58년 철학과에 입학한 후 퇴임을 앞둔 지금까지 말하자면 반평생을 이 곳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곳에 있는 동안 많은 인연을 쌓았지만 그 중에 특히 학생들과 나누었던 점은 잊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떠나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재직 중 가장 뿌듯했던 기억이 있다면.
= 해마다 설이 되면 제자들이 집으로 세배를 오곤 한다. 그 중에는 현재 우리학교 교단에서 교수, 직원 등 각계, 각종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제자들이 많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면 교수로서 뿌듯함을 느끼곤 한다.

- 퇴임 후의 계획은.
= 그동안 우리학교 동서철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며 연구 활동에 매진해 왔다. 퇴임 후에도 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생각이며, 연구소를 이어갈 후배들에게 자문도 해 줄 것이다. 또한 이번 학기부터 학부 수업은 떠나지만 대학원에서 노장 철학과 관련한 수업을 맡아 진행할 계획이다.

김지희 기자
bob83@dongguk.edu

‘배움의 기쁨’ 느낀 20여년의 세월



국어국문학과 김태준 교수

김태준 교수는 처음에 정년퇴임의 변으로 퇴임 인터뷰를 대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자 말문을 열기 시작하니 이내 목이 메어 오는지 잠시 말을 멈췄다. 언뜻 보기

에도 넘치는 그의 제자사랑, 그 진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교수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시절은.

= 86년 처음으로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을 때, 학생운동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88년도의 학생운동은 사회와 학원의 민주화를 강하게 주장했고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선생이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이 헛거운 시대였다.

이러한 시기에 나 자신의 역할, 선생의 역할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4·19의 마지막 세대였던 나에게 그러한 시대적 상황은 잃어버리고 살고 있던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었다.

-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켜온 교육철학은 무엇인지.

= 한번도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해 본 적이 없다. 교육의 목표는 스스로 배움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선생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방식보다는 학생 스스로 공부하여 발표하고, 문제를 만들어 풀도록 요구해 왔다. 때문에 필기시험을 거의 실시하지 않았고, 모든 평가를 학생이 관심있는 문제를 선택하여 그에 대한 해답을 구두로 발표하도록 해 그것을 평가하는 개별면접시험을 실시해 왔다.

김지희 기자
gazzababo@dongguk.edu

“학문 열정 숨겨진 부드러운 카리스마”



영어영문학과 김정매 교수

일찍부터 교수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는 김정매 교수. 남녀 차별이 심했던 시대적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을 때마다 여자가 인정받기 위한 유일한 길은 교수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정년퇴임을 하면서도 지나가버린 과거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계획들로 가득 차 있는, 온화하고 아름다운 미소 속에 열정적 카리스마를 품고 있는 그를 만나보았다.

- 교수로 재직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 80년도 동국대학교에 처음으로 교수로 채용됐을 때, 여자교수는 학교에 흔하지 않았다. 나로 인해 나중에 채용될 여자교수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남자교수들보다 더 열심히 생활했다. 개인적으로는 1994년에 국내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을 강사로 채용한 외국어교육원 원장으로 4년동안 재직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외국인 강사들이 자신들도 우리학교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 집에도 여러 차례 초청하고 가족처럼 지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학생들에게 질 높은 강의로 돌아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 현재 D.H 로렌스 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D.H 로렌스가 어떻게 읽히고 수용되었는지에 관해 연구를 해왔는데, 올 6월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열리는 D.H 로렌스 국제 학술대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한편으로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해 D.H 로렌스 작품을 번역하는 일을 꾸준히 할 계획이다.

김지희 기자
gazzababo@dongguk.edu

“제자들이여, 좌절 말고 노력하라”



정치외교학과 김진철 교수

퇴임을 당당하게 맞는 비결은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열정이라 하겠다. 퇴임을 직장생활의 종말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라 여기며 오히려 활기찬 모습을 한 김진철 교수. 방정리를 하는 그의 등은 전혀 쓸쓸해 보이지 않는다. 김 교수를 만나 지난 학교생활과 퇴임 후 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퇴임을 맞는 소감은.
= 지난 40여년을 정해진 형식의 틀에서 지내왔다. 이제 교편을 놓고 새로운 세상으로 출발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다. 퇴임했다고 해서 한가하게 보내지는 않는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할 것이고 현재 하고 있는 연구원활동을 더 역동적으로 할 것이다.

- 40년 가까이 교직생활을 했는데, 과거와 현재의 대학생들은 어떤가.
= 과거 학생들은 낭만을 느낄 수 있었다. 여름에 남산에 올라가 막걸리를 한잔 하며 수업을 즐겁게 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요즘에 대학이 ‘취업양성소’로 변하자 수업분위기가 다소 삭막해진 느낌이 들었다.

- 동국의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면.
= 과거 대학 교육은 국가의 운명을 고민하는 학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실용적인 교육으로 전락해 버려 마음이 아프다. 또 학생들에게 이러한 실용적인 교육으로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을 탈피했으면 한다. 지금은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의 ‘꿈을 찾을 수 있는’ 독서를 하라고 권하고 싶다.
또한 인성을 살다보면 한두번의 실패가 올 수 있다. 이럴 때마다 좌절 혹은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 이겨나갔으면 한다.

황주상 기자
hjs228@dongguk.edu

“동국맨의 바람은 교육환경 보완”



역사교육과 임영정 교수

“나야말로 오리지널 동국맨이지” 우리학교에서 학사과정은 물론, 석·박사까지 모두 마치고 교편을 잡은 임영정 교수.

본사 주관도 역임했던 그는 무려 45년을 동국과 함께 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 또한 동국인이라는 일 교수에게서 남다른 애교심을 느낄 수 있었다. 퇴임을 맞는 시점에서 그의 반평생이 넘는 동국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우리학교와 인연을 맺은 계기는.
= 내가 처음 동국대와 인연을 맺은 것은 동국인 때문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알고 싶었다. 그러던 중 우리학교 사학과 1회 졸업생이었던 담임선생님께서 좋은 대학이라고 권고해 주셔서 들어오게 됐다.
하지만 요즘 타 대학에 비해 학문 외적평가에 밀리고 있어 가슴 아프다. 학교에서 적극적인 교육환경 보완을 해줬으면 한다.

- 기억에 남는 강의가 있다면.
= 8년 전에 ‘한국의 전통문화’라는 과목을 강의한 적이 있었다. 이때 970여명이 신청해 700명이 정원인 증강당에서 비좁게 강의했던 일이 생각난다. 당시 학생들에게 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미안하다.

- 퇴임하고 난 뒤 계획은.
= 현재 간도와 독도의 영유권문제가 있는 만큼 이 방면으로 적극 활동할 생각이다. 우선 해양수산부 독도자료실에 나가 연구에 더 전념할 생각이다. 또한 국외에 맞게 영토관계사를 총정리한 자료를 편찬할 계획이다.

황주상 기자
hjs228@dongguk.edu

2005학년도 1학기 신규교수



김 중 옥
불교대학 불교학과
전임강사

학부를 졸업하고 다른 대학에 가서 다른 전공을 공부한 분래 의도는 불교를 인접 학문, 특히 현대 서양철학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공부과정을 거치면서 서양의 자연철학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이는 후일 지극히 당연하게도 불교생태학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불교생태학이란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만나고 아울러 전통과 현대, 또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극히 학제적인 학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통합적인 사유를 지향하는 이 시대의 경향이 가장 잘 부합하는 학문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갈등이라는 시대의 화두를 해결하고 불교의 현대적 체계화에 기여하는 이 신생 학문에 학생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불교생태학 전공 △동국대 불교학 △서울대 철학 석사, 박사 △동국대 BK21 연구교수



이 희 정
법과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깊은 철학적 전통이 전승되어 온 오랜 역사의 동국대에서 저의 첫 전임교원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은 인간이 공동체생활을 한 이래 지금까지 고안해 낸 제도 중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데 아직까지는 가장 유효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으로서 서편만 아니라 우리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사는 수단으로서의 법에 관해 지식과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국인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동국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정법 전공 △서울대 법학 △미국 Georgetown대 석사 △서울대 법학 박사 △서울대 BK사업단 △미국 뉴욕주 변호사



이 철 한
경영대학 광고학과
전임강사

기업이 사회에서 존경을 받아야 번성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홍보는 기업과 관련공중간의 이해와 존경을 도모하는 활동으로 이는 동국대의 건학이념인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 세계의 구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2005년은 광고학과가 10주년을 맞는 기쁜 해입니다. 동국인 모두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광고학과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홍보계로 진출을 원하는 동국인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학생을 이끄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연세대 신문방송 석사 △미국 미주 리주립대 저널리즘 박사 △미디어 연구소 연구위원



박 관 순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100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사학인 동국대학교의 일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구조물의 진동제어에 관한 연구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지진이나 태풍 등에 의한 구조물의 피해를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사용성이 있도록 하는 내진/내풍 설계 등이 제가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을 다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하며, 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교육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조해석 및 진동제어 전공 △서울대 구조공학 석사, 박사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BK 조교수



이 만 희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조교수

학창시절 이 교정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글쓰기에 대한 집념을 불태우곤 했습니다. 그리고 삼십여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젠 이 교정에서 후배들에게 희곡을 비롯한 극(劇)문학의 글쓰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제자들 중에 훌륭한 극작가가 배출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겠으며 보직은 절대 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곡및시나리오창작 전공 △동국대 인도철학 △극작가 △동덕여대 조교수



김 성 중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전임강사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국대의 발전에 합류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어가 세계의 공용어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동국대 영어영문학과 출신 학생들의 어학이나 문화적 능력이 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라는 엄격한 관계가 아니라 선배와 후배 같은 편안한 관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국시 전공 △동국대 영어영문학 석사 △미국 Nebraska대 영어영문학 박사



강 삼 도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전임강사

20여년전 배우기 위해 대학생활을 시작했던 내가 이제는 가르치기 위해 다시 대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되돌아온 곳이지만 언제나 나를 기다렸던 것처럼 포근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되기 보다는 모든 것을 함께 호흡하는 가족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화폐금융론 전공 △서울대 경제학과 석사 △미국 UCLA 경제학과 박사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황 재 현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자원산업융합학과
전임강사

동국대학교의 캠퍼스를 졸업한지 10년 만에 교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와는 너무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래도 캠퍼스 곳곳에서 학창시절의 달콤한 추억의 향기가 되살아나는 듯 싶습니다. 모교의 강단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후배님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학교발전과 학과발전이라고 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연구활동과 교육활동에 정진하겠습니다.

△식품경영 전공 △동국대 농업경제학 △일본 구주대 경제학 석사, 박사 △농업기반공사 전문연구원



이 윤 호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우리 경찰행정학과는 오랜 전통과 높은 명성을 가진 전국 최고의 학과로서 그동안 학문발전과 경찰간부를 비롯한 관련분야의 간부를 양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명성을 이어감은 물론이고 훌륭한 인재의 산실로서 그리고 학문의 요람으로서 굳건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찰행정학과가 학문의 요람으로서 자리할 수 있도록 학부는 물론이고 대학원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열정을 쏟고자 합니다.

△형사학 전공 △동국대 경찰행정학 △미국 Michigan주립대 형사학 석사, 박사 △경기도 교수

경주캠퍼스

- ▲김중배 △공과대학 컴퓨터·멀티미디어학과 전임강사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 전공 △밀양대 컴퓨터공학 △경북대 컴퓨터공학 석사, 박사 △울산대 RRC센터 전임연구원
- ▲장유진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전임강사 △임베디드시스템/네트워크보안관리 전공 △한국과학기술원 전자전기공학 △포항공대 전자전기공학 석사, 박사 △포항공대 Post-Doc
- ▲전병길 △관광대학 관광경영학과 조교수 △호텔경영 전공 △서강대 경제학 △미국폴로리아국제대 호텔외식경영학 석사 △경기도 호텔경영학 박사 △경주대 조교수
- ▲심재명 △관광대학 관광경영학과 전임강사 △관광경영 전공 △한양대 관광학 △Surrey University International Hotel Management 석사 △Pennsylvania 주립대 Leisure Studies 박사
- ▲배호승 △한의과대학 한의학과(경주한방) 전임강사 △사상체질과(사상체질의학) 전공 △동국대 한의학 석사
- ▲한창호 △한의과대학 한의학과(인산한방병원) 전임강사 △한방내과 전공 △경희대 한의학 석사, 박사 △자생한방병원 학술부장
- ▲민영일 △의과대학 의학과(일산) 교수 △내과(소화기) 전공 △서울대 의학 석사, 박사 △울산대 교수
- ▲이명묵 △의과대학 의학과(일산) 교수 △내과(순환기) 전공 △서울대 의학 석사, 박사 △서울대 교수
- ▲태석기 △의과대학 의학과(일산) 교수 △정형외과 전공 △서울대 의학 석사, 박사 △중앙대 교수
- ▲조상현 △의과대학 의학과(일산) 교수 △성형외과 전공 △서울대 의학 석사, 박사 △포천중문대 부교수
- ▲김규삼 △의과대학 의학과(일산) 교수 △마취통증 의학과 전공 △서울대 의학 석사 △도티병원 과장
- ▲윤 엽 △의과대학 의학과(일산) 교수 △진단방사선과 전공 △서울대 의학 석사, 박사 △경희대 교수
- ▲김경수 △의과대학 의학과(일산) 교수 △내과(신장) 전공 △서울대 의학 석사, 박사 △포천중문대 대 교수
- ▲정인원 △의과대학 의학과(일산) 교수 △정신과 전공 △서울대 의학 석사 △중앙대 의학 박사 △충북대 교수
- ▲채석래 △의과대학 의학과(일산) 교수 △진단검사의학과 전공 △서울대 의학 석사, 박사 △중앙대 교수
- ▲이상민 △의과대학 의학과(일산) 부교수 △정형외과 전공 △서울대 의학 석사 △경희대 의학 석사, 박사 △인제대 조교수
- ▲박상은 △의과대학 의학과(일산) 조교수 △정형외과 전공 △서울대 의학 석사, 박사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연구부교수대우
- ▲조창건 △의과대학 의학과(일산) 조교수 △이비인후과 전공 △서울대 의학 △울산대 의학 석사 △울산대 조교수
- ▲임영국 △의과대학 의학과(경주) 전임강사 △성형외과(수부및미세수술) 전공 △영남대 의학 석사
- ▲정동우 △의과대학 의학과(경주) 전임강사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전공 △동국대 의학 △영덕군 공중보건
- ▲최대해 △의과대학 의학과(경주) 전임강사 △응급의학과(응급의학) 전공 △계명대 의학 △동산의료원 레지던트
- ▲이태희 △의과대학 의학과(경주) 전임강사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전공 △경북대 치의학 석사
- ▲하준영 △의과대학 의학과(포항) 전임강사 △산부인과(산부인과) 전공 △동국대 의학 석사 △경주병원 레지던트
- ▲박병찬 △의과대학 의학과(포항) 전임강사 △산업의학과(산업의학/예방의학) 전공 △동국대 의학 석사
- ▲임윤정 △의과대학 의학과(일산) 전임강사 △내과(소화기) 전공 △경북대 의학 △울산대 의학 석사 △성균관대 의학 박사 △삼성서울병원 전문의
- ▲정성훈 △의과대학 의학과(일산) 전임강사 △정신과 전공 △서울대 의학 석사, 박사 △서울시립은평병원 진료부장



박 석 홍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전임강사

100년 전통의 종합대학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도를 실천하고, 연구와 교학을 맡겨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느낍니다.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며, 늘 노력하는 자세와 겸허의 마음으로, 학교와 학과의 발전을 위해 거듭나도록 정진 또 정진하겠습니다.

△중국어학 전공 △성균관대학교 문학사 △중국 산둥대학 문학원 문학석사 △성균관대 중어중문학 박사 △우송대 전임강사



김 대 룡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임강사

대학시절 매 강의시간마다 복잡한 이론과 난해한 의미를 아주 쉽게 전달하시던 한 은사님의 모습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의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묵묵히 학자의 길을 걸으시는 그분의 모습은 정말로 존경이란 말로는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진정한 교육자와 연구자의 모습을 동시에 이루어 내기란 참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겠기에 학내 비탈길을 올라가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항상 초심을 잊지않고 부끄럽지않은 동국 가족의 일원이 되기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재무관리(투자론) 전공 △동국대 통계학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통계학 석사 △미국 네브라스카주립대 재무관리학 박사 △에듀테크연구소 부연구위원



황 승 훈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전임강사

동국대학교 가족이 되어 무척 기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현재까지 CDMA 방식의 이동 및 무선 통신에 관한 연구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일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미래에 펼쳐질 이동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의 요소 기술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정열과 끈기를 가지고 즐겁게 해나가겠습니다.

△통신(이동 및 무선) 전공 △연세대 통신시스템 석사, 박사 △LG전자 책임연구원



차 승 재
영상대학원
영화영상학과 부교수

1995년 우노필름에서 '돈을 갖고 튀어라'를 시작으로 10년 동안 30편 이상의 한국 영화를 제작하였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동안 한국영화의 위상이 참으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불어 스스로 책임감도 커지고, 어찌도 무거워 지는 듯 합니다. 이제 여러 학생들과 만나 한국 영화의 현주소와 미래에 관해 토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듯 합니다. 현장경험을 토대로 좀 더 생산적인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화기획·홍보·마케팅 전공 △한국외대 불어교육학 △취씨아티스트 대표이사



김 도 현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동국대학교와 좋은 인연을 맺게 되어 한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공은 법과 사회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론과 현상을 탐구하는 분야인 법사회학으로서, 법학 중에서도 다소 한계영역에 해당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사정이 허락한다면 윈도즈보다 리눅스로 부팅하고 사정이 허락한다면 워드프로세서보다 라텍스로 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의 인연을 더욱 아름답게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사회학 전공 △서울대학교 석사 · 박사 △경주대 조교수



이 상 현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임강사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동국대에서 여러분들과 호흡하며 꿈과 희망을 함께 키워갈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행위와 그의도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 이론과 관련된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기 보다는 서로의 생각과 배움을 나눌 수 있는 정감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모두가 어우러져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날까지...

△마케팅(소비자행동) 전공 △광운대 경영학 △미국Purdue대학교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석사 △미국 Purdue 대학교 Consumer Sciences & Retailing 박사 △미국 North Carolina Central 대학교 경영대학 마케팅 조교수



전 병 훈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전임강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교에서 스승님들께 가르침을 받은 게 잊고 제 같은데 이제는 모교의 강단에서 여러분의 스승으로 또한 가까운 선배로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 스스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지만 노력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을 여러분에게 열정과 성의로 보답코자 합니다.

한 세기의 역사를 지닌 우리 동국의 양적인 팽창과 더불어 질적인 팽창을 위해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

△플라스마 프로세싱전공 △동국대 전기공학석사 △일본 Keio대 전기공학 박사 △충북대 전기전자공학과 조교수



박 상 훈
영상대학원
멀티미디어학과
조교수

개교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사학의 명문 동국대학교의 일원이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급격한 변화와 냉혹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상은 스스로를 강하게 단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학생 여러분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치열하게 연구하고 노력하는 교수가 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컴퓨터그래픽스 전공 △서강대 수학과 △서강대 컴퓨터학 석사, 박사 △대구가톨릭대 조교수

200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하나의 날개로 살아가라
지치고 지친 영혼들이여
더 넓은 사랑으로 돌아가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가라

가득한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노래하듯이 지저귀며 하늘로 날아올라라

푸른 바다 푸른 하늘 마음에 품고
이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딛어라

순수한 맑은 영혼이여,
더 많은 사랑의 들뜬으로 날아가라

박사학위수여자 (87명)

철학 (6명)

- ▲서재영=선(禪)의 생태철학 연구
- ▲최도영=율곡 철학의 역사적(易學的) 연구
- ▲김정일=인공성의 폐쇄성을 넘어서
- ▲김종두='마사지관(摩訶止觀)'의 수행 체계 연구
- ▲김인순=아렌트에 있어서 정치적 사고와 정치적 판단
- ▲곽상훈=조기불교경전의 자비와 공관 복음서(福音書)의 아가페 연구

문학 (10명)

- ▲배연형=판소리 소리책 연구
- ▲심효섭=조선전기 영산재(靈山齋) 연구
- ▲전영준=고려시대 공역승(供役僧) 연구
- ▲김시무=라강의 주체이론 재조명:
- ▲박병옥=모녀관계를 통한 여성의 몸 재현
- ▲최윤근=한국어 교육을 위한 구분표현 연구
- ▲이명자=김정일 통치시기 가족멜로드라마 연구
- ▲김선엽=그림시적 시민사회로서의 한국영화 연구
- ▲정효진=영어 후치 명사구의 담화기능과 주제지행
- ▲신상구=수운(水雲)의 최제우(崔濟愚)의 성경론(誠敬論)과 문학적 실현양상(實現樣相) 연구

교육학 (7명)

- ▲하광호=한국 학원교육의 발전추이
- ▲신강탁=사립대학 행정감사에 관한 실증적 분석
- ▲예철해=듀이 교육사상이 한국 교육과정 에 끼친 영향
- ▲유상덕=생활권 중심 교육자치 단위 설정에 관한 연구
- ▲배영희=유치원 전통놀이 프로그램의 교육적 의미와 가치
- ▲김용희=현대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청소년상(靑少年像)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이홍림=청소년의 심리적 외상과 우울, 품행장애성향,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법학 (3명)

- ▲김장곤=고령자 보호법에 관한 연구
- ▲최성호=주주대표소송절차에 관한 연구
- ▲김진철=주주제안의 사전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정치학 (3명)

- ▲조남진=북한 핵 위기관리 연구
- ▲김동성=유엔평화유지 활동에 관한 연구
- ▲진유정=근대 국제체계의 변화와 연속성에 관한 연구

행정학 (5명)

- ▲박승주=광역적 행정체제 기능개편에 관한 연구
- ▲엄지윤=광역자치단체의 자주 자원 확보

- 보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정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조기룡=불교지도자의 리더십이 사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김희웅=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 (4명)

- ▲이중수=조선시대 시위제도 변천에 관한 연구
- ▲조윤오=여성범죄자의 사회내 처우에 관한 연구
- ▲김창윤=GIS를 활용한 경찰의 범죄통제에 관한 연구
- ▲이대성=한국의 테러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학 (1명)

- ▲윤종로=반공독재국가 형성과 국가능력 비교 연구

경제학 (1명)

- ▲정일구=한·중·일 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연구

경영학 (4명)

- ▲최창열=한국의 대 EU 수출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 ▲권정희=백금계열 금속소재의 조달 및 재고비용에 관한 연구
- ▲백진현=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박철영=중소기업 전자상거래의 글로벌 이용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이학 (11명)

- ▲하오선=의류 브랜드 자산 평가
- ▲양상용=낙동강의 조류(藻類) 및 방선균(放線菌)에 의한 이취특성(異臭特性) 연구
- ▲김희웅=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이중수=무도의 수련경험에 따른 무도 정체성과 여가 및 생활 만족의 관계
- ▲송승희=골프장별 운영관리 특성과 이용실태 분석을 통한 경영효율화에 관한 연구
- ▲남상옥=참나리(Lilium lancifolium Thunb.)의 식물체 재생 및 형질전환에 관한 연구
- ▲최영달=여성고령자의 스트레칭운동과 유산소운동 프로그램이 건강체력에 미치는 영향
- ▲박찬진=Structural and optoelectronic properties of nano-scaled Germanium and Silicon
- ▲허현=비브리오 불니피쿠스(Vibrio vulnificus) 독소의 분리 및 세포독성 기작(機作)에 관한 연구
- ▲이세준=Growth and Characterization of p-(Zn1-xMnx)O Diluted Magnetic Semiconductor Films

공학 (9명)

- ▲조상규=고층건축물(高層建築物)의 인동간격(隣棟間隔)에 따른 풍응답 평가(風應答評價)
- ▲이성우=다중 카오스 사상을 이용한 디지털 영상 암호시스템 설계
- ▲김홍석=지하굴착 기반에서의 지하수 흐름 해석에 관한 신뢰성 연구
- ▲방나호=이미지검색을 위한 굴곡 기반 형태 그래프를 이용한 모양 정합
- ▲조태완=건설 폐기물 재활용 향상을 위

- 한 해체공정개선 및 경제성 분석
- ▲박세형=리프팅 기반 정수변환기법 개발과 무손실 오디오 부호화에의 응용
- ▲배진용=손실분석을 통한 Three-Level DC/DC 컨버터의 효율개선에 관한 연구
- ▲전우성=Applications of Object Segmentation and Fast Tracking Algorithm for Digital TV
- ▲이은영=PFC와 무손실 스너버 회로를 이용한 Two Transistor Forward 컨버터의 특성 개선에 관한 연구

한의학 (18명)

- ▲손창우=좌골환(左金丸)의 혈관이완기전
- ▲공대중=정간탕(定癩湯)과 능소화의 항경련(抗痙攣) 효과에 관한 연구
- ▲황정일=기경팔맥(奇經八脈)의 맥진법(脈診法)인 기구구도맥(氣口九道脈)에 관한 연구
- ▲정호기=이지환이 혈당 조절 및 당 대사 효소 활성에 미치는 영향
- ▲한진수=가갈방지황탕(加減荊防地黃湯)이 항산화 및 발암억제 활성에 미치는 영향
- ▲손명용=이정환이 노화과정에서 NF-kB 및 COX-2 저해에 미치는 영향
- ▲김중구=고콜레스테롤 식이로 유발된 동맥경화에 대한 삼칠근의 저해효과
- ▲권요규=희랍(稀薊)의 MCF-7세포에서의 Mitochondria 경로를 통한 Apoptosis 유도
- ▲이동희='소문 열론(素問 熱論)' 육경분증(六經分證)과 '상한론(傷寒論)' 육경변증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정연호=Apoptosis by apigenin of Euonymus alatus in human breast cancer cells
- ▲김경옥=Effect of Salviae miltiorrhizae radix on rat dopamine release in vitro
- ▲임익섭=Effects of apigenin, luteolin and Scutellaria barbata on human

- leiomyomyl cells
- ▲김완식=원위 대뇌세포의 저산소증 모델에서 황금이 세포사 방지 유전자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 ▲곽근화=A study of Inhibitory effect of Cho-Deung-San on human smooth muscle cell migration
- ▲이연도=Investigations into the immunomodulatory activity of Ulmus davidiana Planch extracts
- ▲한영규=가미장백산(加味蒼朮散)이 Carrageenan 유발 동물모델 관절염의 소염, 진통, 해열 및 면역에 미치는 영향
- ▲배성민=Effects of Drynariae Rhizoma on leukocytosis associated with the chronic arthritis in mice and type II collagen-induced arthritis
- ▲안현국=A Study on oxidative stress and hepatic and renal ornithine decarboxylase activities of Curcuma longa L. (Zingiberaceae) in mice

의학 (4명)

- ▲김호창=Genistein의 유방암 예방활성에 관한 연구
- ▲김수근=남자 근로자의 인슐린 저항성 중추근의 발생률 및 위험요인
- ▲김나연=양태아의 산소 환기 중 Endothelin B 수용체 차단제가 폐동맥 확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박병찬=조선소 남성 근로자에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작업관련성 상지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 분석

영화영상제작 (1명)

- ▲이민홍=동행(同行) - 영상 작품
- ▲김경옥=Effect of Salviae miltiorrhizae radix on rat dopamine release in vitro
- ▲임익섭=Effects of apigenin, luteolin and Scutellaria barbata on human

석사학위수여자 (588명)

일반대학원 (258명)

- 문 학 김미경 김옥선 김윤정 김호산 정주영 김순아 노재숙 윤창혁 김진국 박은정 조미경 김은주 서영진 윤상환 조형태 한재희 박지은 이상욱 임형진 전초롱 고상현 이광배 서승연 김영숙 이계권 강형철 유현주 유현주 정현수 박부식 박정선 이형걸 최지연 손갑호 오미영 황인욱 김민경 박경미 정경숙 박보경 이육호 왕순녀 최연주 오정현 류회성 김일신 황준원 김영선 이재현 채병석 임 보
- 미 술 학 홍성모 이영경 오진희 최원준 김문영
- 교 육 학 한미희 박사빈
- 법 학 민용기 이덕희 오남규 이승재 박해영 김세준 이강희 송현민 손행자
- 정 치 학 아해영 김재현 안석룡 이장환 노선희 홍성민 김상범 이태훈
- 행 정 학 이법호
- 경 찰 학 정우일 김양현 박주상 최은하 이도선
- 경 제 학 김민준 최승준 김동우 강동근 이상은 신재은 김광천
- 경 영 학 권봉화 김호열 이 환 김병국

- 김성철 김중수 전항태 김호진 손부호 박은철 강성배 오수현 강구호 윤성훈 김소희
- 상 학 강상훈 강무희 이근형 최문성 이 승은 장미연 고은애 이주원 김나영 김경해 김정목 김영아 이대희 양윤정 박유진 손시욱 김진영 김덕원 조기현 김진우 안현정 정규호 박강욱 김규석 김용민 고성민 김진선 오종수 박철우 장민영 박상수 윤창환 최지영 지진우
- 임 학 이금영 강성호 윤석희 김지아 이경락
- 조 경 학 이호정 서재훈 지정환 김재환 김은경 최정원 박춘식 김철용 이재용 고정훈 김기호 박민규 홍성건 이지연 조창식 김민석 김재열 윤승찬 정인철 김유식 박인수 정성훈 임성진 조희정 김재현 김현성 이재희 김경서 김영수 진진만 강남구 안도현 여신구 설지훈 김대환 추은하 김현수 라황균 안성현 백용현 박상태 심성보 황준호 강민호 김경남 광준선 이주은 전성기 주 남 김지영 김현수 이정철 이달은 홍승욱 유창성 박해권 정지찬 정동민 이화영 고백석 김태훈 김동규 나미선 김혁호 고두현 김성하 서희원 이주환 이상진

- 이주현 윤진희 오정훈
- 체 육 학 이세승
- 가 정 학 김하연
- 한 의 학 조성규 현민경 최재우 김명균 김현일 정미경 황준순 홍의재 김인경 정운석 박동준 박순재 정형철 배경연 조호근 최유석 이민동 이아람 공태현 황정구 박정훈 최은영 박준성 조영욱 김한주
- 의 학 이상호 정재욱 박운선 김준형 권유희 김성철 최원석 조영하 김미영 김호학 방미란 홍현숙 양미경

영상정보통신대학원 (24명)

- 공 학 구분승 노준섭 강인선 김성식 김경희 장민석 윤영준 조준호 박인선 김지영
- 디 지 인 학 이혜연 유영이 이경득 고재혁 이은실 이문영
- 음 악 이희준 박경화 조이수 김도현 김정아

불교대학원 (14명)

- 문 학 김세중 황종국 전정순 염준근 이경은 강철구 백무경 이상은 사회복지학 노은경 박주벽 차형신 조근용 정문영 황석중

행정대학원 (43명)

- 행 정 학 박우서 배현주 배명희 조부행 안관혁 장현준 한영수 윤종구 서우철 양승돈 박홍주 윤정민 고혜진 장병철 조승연 조준원 김진표 류재완 황성모 양재용 신석중 이병열 이경화 김경식 김경희 신상우 김윤하 안민숙 조희숙 홍태석 김규광 박태경 김화수 노태우 추영빈 김명호 김태일 장영재 김창준 이은희 고효상 임응순 김학범

경영대학원 (63명)

- 경 영 학 김희수 김용철 황성환 유형석 이규설 정 훈 민병걸 박만규 박운경 배형수 이정룡 정미희 안은영 규규욱 이춘우 장현태 박성락 이강한 이동근 조명자 강석 이명룡 서재식 정은욱 김중만 송은섭 이명성 광수영 김두열 윤호진 이은식 최진아 이상은 이원규 장영호 김광태 신경심 유영호 김민수 김선식 조영범 김성진 조관석 한재우 이재호 김홍호 김경남 최인근 김광희 소순성 임성순 강귀원 북애라 이진혜 성낙원 박진성 주재안 김홍균 서종준 이현호 한승희 강경호 이유환

교육대학원 (78명)

- 교 육 학 권성희 문현경 황해룡 김재용 이금주 전상모 박범철 권재성 김경미

- 김용재 정오경 이재너 김상훈 박근정 손지영 이소현 이영의 신문규 오지은 김기연 이재수 정지선 박진영 문경미 안경주 안순주 이서경 김경자 고경화 김영돈 김수연 서상주 김은기 백이순 이방대 정연우 고광욱 장미나 김미화 김유식 주현아 홍소정 김연홍 오선우 이지혜 장순화 김민진 양혜원 김상학 박 현 고봉기 김미경 이미영 김경희 김미용 이정혜 하정희 박선정 이현도 서은미 김의석 박수진 이방주 임지윤 이현영 박 민 김안나 배미화 김윤정 장진영 안배영 박미향 손진숙 이순덕 강대경 임미경 우지연 김상민

언론정보대학원 (16명)

- 언 론 학 안직수 노용래 김영근 홍미현 홍정우 이상신 이영배 이현정 신인훈 김영학 황희순 박진숙 안세연 윤순주 조중문
- 문 학 김택상 유정규

산업기술환경대학원 (16명)

- 공 학 김나영 김은기 문성주 양일규 이상배 이승호 이정순 김수환 강병권 강희수 심영숙 이종근 홍성우 김수영 노향선 황선영

문화예술대학원 (25명)

- 문 학 이명지 김도진 박미경 박세환

- 김미자 오성희 김복규 정복자 천외자 김화순 하종기 양은정 김민주 박영민 이대의
- 예 술 학 황세희 차수정 이경자 미술학 양병천 최미연 음악학 박지영 서순재 황부남 예술경영학 송시은 위희경
- 국 제 정 보 대 학 원 (24명)
- 공 학 양세봉 정기환 최재규 김광수 류창열 김미환 백승오 호순근 김성배 유재은 김종식 이상영 김동우 박진성 장성봉 김병철 신순자 박용주 최해솔 박동섭
- 번 역 학 김미숙 김정환 윤수정 장현례

불교문화대학원 (2명)

- 문 학 이춘열 지문갑

사회과학대학원 (25명)

- 행 정 학 전 진 이정숙
- 경 영 학 이상훈 김대길
- 법 학 우종철
- 사 회 복 지 학 성말순 김진호 류영희 최경란 허재민 정복급 최병호 박명희 이순희 송미경 정해욱 김효정 양수욱 김현희 최정미 이명희 박필하 이정화 정주영 정경옥

연재기획 **환경문화를 말한다**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요즘, 대학가에도 환경문화가 조성돼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대학인들이 환경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이를 개선해 나가는 활동은 여전히 부진한 편이다. 이에 본사 문화부에서는 대학생들이 주변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분야를 살펴보는 연재 기획을 준비했다.

- ① 봉사부문
 - 아름다운 가게
 - 대학연합 환경봉사 동아리
- ② 건축부문
 - ③ 미술부문
 - ④ 음악부문
 - ⑤ 르포

편집자



내겐 쓸모 없어도 타인에겐 '보물'



윤영주 간사(아름다운 가게 홍보캠페인 팀).

'나눔과 순환'을 모토로 지난 2002년 3월 설립된 '아름다운 가게'는 환경보호활동과 봉사활동을 함께 실천하는 전국적 규모의 단체이다. 이에 아름다운 가게 홍보캠페인 팀의 윤영주 간사를 만나 아름다운 가게 활동 전반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나라 환경보호의 문제점, 대학생들의 환경운동 방향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아름다운 가게의 활동내용과 범위.
- 매우 다양한 활동을 한다. 아름다운 가게 매장에서 개인이 쓸모없게 된 물건들

기증해 필요한 사람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오는 3월 17일부터 한달에 두 번씩 한강 독점유원지에서 열리는 '나눔시장'은 대규모 알뜰시장으로 하루 7~8백여명의 사람들이 이용해 쓰레기를 줄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아름다운 토요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학교와 연계활동을 하기도 한다. 그 곳 구성원들이 기증한 물품을 기증자들이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은 봉사활동 체험과 더불어 재활용 의식과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고취시키는

기회가 된다. 또한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으로 저소득층·독거노인과 같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 '나눔' 활동을 실천한다.

- 아름다운 가게 자원 활동 지원 방법과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이들의 구성은.

= 자원 활동 희망자는 아름다운 가게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로 수시 신청 후 정기교육을 받으면 자원 활동가로 일할 수 있다. 자원 활동가는 매장관리·사무보조·판매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특히 '나눔장터'의 경우 200여명의 인력이 필요한 대규모 행사인데

이 때 자원 활동가의 역할은 무척 크다. 현재 자원 활동가들의 대부분은 주부이다. 요즘은 졸업·취업 시 봉사학점 필수 취득 등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참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기회가 인연이 돼 꾸준히 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해 자원활동가가 되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우리나라 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 먼저 지적할 것은 생태계의 흐름을 무시하는 개발 근본주의 정책이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곳에서는 개발보다 보존이 먼저다. 이미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뤄진다'는 말이 상투어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생태맹'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생태계에 대해 무지하다는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이다. 오랫동안 도시에서 길들여진 사람들이 점차 '생태맹'이 되는 것 같다.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나무 나이가 몇 살인지, 흙냄새가 어떤 것인지, 새를 봐도 무슨 새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난다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혀오던 것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함께 줄어들어 가는 것 같다.

- 대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환경문화운동을

제안한다면.

=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파고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대중제를 준비할 때 별 생각 없이 사용하는 일회용품, 합부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등은 조금만 고민하면 줄일 수 있다. 대학가에서 많이 사용되는 플래카드도 문제다. 종로구청에서 하루에 수거하는 폐현수막의 양이 1톤이라고 한다. 25개 구가 있는 서울에서 한 달에 나오는 폐 현수막이 어림잡아 700톤이 된다는 이야기다. 더불어 현수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페인트는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폐 현수막을 소각하는 데 필요한 소각비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다. 얼마전 폐 현수막을 수거해 재활용 장비구니 8천개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러한 재활용도 방법이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사용을 줄이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좀 더 여유를 갖고 이동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요즘은 '속도의 시대'라 이동 공간에 있는 곳들은 관심이 지나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 예로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면 기존에 자동차와 지하철을 탈 때와는 훨씬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빠르게 지날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인식되면서 그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기 때문이다.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은 환경보호의 첫걸음이다. 이러한 작은 관심이 환경운동의 시작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메아리

신입생의 '자유권'

▲영화 '브레이브 하트(Brave heart)'의 주인공 '윌리엄 월레스'는 스코틀랜드의 영웅으로 잉글랜드의 손에 죽기 직전까지 조국의 '자유'를 외친다. 월레스 뿐만 아니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유를 갈망한다. 근·현대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찾으려는 움직임의 연속이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4.19 혁명, 서양의 다양한 혁명 등은 모두 인간의 기본권리인 자유를 찾기 위한 시민들의 거대한 물결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자유란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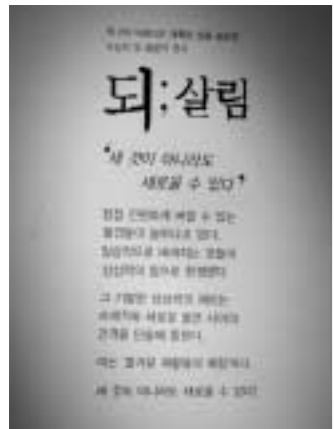
▲'자유'라는 단어는 '남에게 구속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권은 타인의 권리 불가침, 도덕률 존중 등의 암묵적 제약을 받는다. 그런데 적어도 대학 내에서는 스스로에게 허용하는 지나친 자유 또한 암묵적 제약 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 23일 만해광장에서 입학식이 열렸다. 아직 고등학생의 옛된 모습을 간직한 새내기들은 자신이 품에 그런대 학생이 된다는 사실에 설레어한다. 개강 후 얼마 동안 학교 주변에서 이들이 누리는 '자유로움'을 종종 볼 수 있다. 술 기운에 들뜬 신입생들은 처음 경험하는 환경에 낯설어하면서도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것이 학창시절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위험해질 수 있다. 진정한 자유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대학은 학창시절 구속으로부터의 탈출구로 인식된다. 때문에 많은 신입생들이 갑자기 주어진 '자유'에 갈피를 못 잡는다. 게으름과 방탕함으로 인한 수업결강과 비적극적인 학교생활은 스스로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도록 한다. 신입생들 모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행동으로 진정한 '자유인'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최민희 문화부장
mh705@dongguk.edu

'아름다운 쓰레기'가 있는 곳



우리는 매일 어떤 쓰레기를 버릴까. 쓰레기 처리장에 가보면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전시회'라는 색다른 곳에서도 이를 깨달을 수 있다.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것을 재활용 해 실생활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작품을 전시한 '뒤:살림' 전시회. 아름다운 가게에서 주최, 대학로 제로원 디자인센터에서 오는 3월 3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회에는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 중 독창성과 상품성, 새 재료 사용 최소화 등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은 수상작들이 전시돼 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2003년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지상최대 벼룩시장'의 세부코너를 독립화해 규모를 키운 것이다. 첫 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개성있는 아이디어를 접목시킨 재활용 상품들이 많이 출품됐다. 버려진 CD케이스에 종이를 끼워 벽에 부착해 하나의 그림을 만든 인테리어용 타일, 현 우산 천으로 만든 어린이 비옷, 못 입는 청바지를 잘라 만든 실내용 슬리퍼 등 재활용 소재와 아이디어가 다양하다. 특히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는 작가뿐만 아니라 일반 주부·학생 작가도 있어 사회적으로 재활용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못 입는 청바지 또는 현 우유팩을 갈아 재활용 종이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특별행사도 개최돼 눈길을 끈다. 직접 과정을 체험한 박지훈(23) 씨는 "청바지와 우유팩으로 종이를 만드는

것이 무척 신기하다"며 종이에 꽃잎과 글씨를 새기는 등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가미시켜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전시회 담당 팀장 조현경 씨는 "출품작들 중에 새 빨대를 사용해 의자를 만드는 등 재활용품 흉내만 낸 작품들도 적지 않았고, 우편접수로 인해 포장용지 등 새로운 쓰레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다음해부터는 이를 보완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떤 쓰레기들을 버리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쓰레기가 될 물건들이 버젓이 생활용품으로 재탄생된 이색 전시회 관람을 통해 자기 쓰레기통을 한번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져보자.

문화부
dgupress@dongguk.edu



▲ 버려진 종이박스 만든 액자와 현 천을 이용해 만든 기방.

◀ 폐 CD케이스에 그림이 그려진 종이를 넣어 하나의 멋진 타일 벽화를 탄생시켰다.

매체비평

연극 편

바람의 키스

인간의 본질적 사랑에 대한 깊은 성찰



사랑에 대해 신중히 물음을 던지는 연극 '바람의 키스'

일곱 색깔 무지개나 오로라를 생각하라고 하면 보통 막연히 환상의 세계가 그려진다고 하며, 그 범주 속에 '사랑'을 끼워 넣기도 한다고 한다.

2005년 2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대학로 설치극장 정미소에서 극단 페아르노리의 '바람의 키스'가 공연되고 있다. '믿음과 희생이 없으면 사랑에도 이별이 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프랑스 현대문학 소설가 안나 가발다의 원작 '나는 그녀를 사랑했네'라는 소설을 연극으로 공연하고 있는 것이다. 연극이 소설이 지닌 고유의 특성, 즉 독자 스스로 상상하면서 그려내는 수많은 장면과 환상을 어떻게 표현해 낼까 하는 우려를 장마 비가 내려 거리를 깨끗이 정리하듯 극단 '노리'의 공연은 그런 우려를 접게 만든다. 극단 '페아르노리'의 최근 몇 년 사이의 특징은 주제에 있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비는 천년을 꿈꾸다(2001)', '클로저(2002)' '냉정과 열정사이(2003, 2004)' 등 소설을 무대화시키는 데 있어 멀티 씨어터(Multi Theater)적인 기법을 사용해 공연양식의 다양성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클로저'나 '냉정과 열정사이'가 영화적 기법을 통한 매체간의 초월이었다면 '바람의 키스'는 두 명의 배우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연기

하며, 여 주인공의 1인 3역 기량은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배역에 따른 다양한 소리(음성의 색깔, 말투), 움직임(걸음 동작, 손의 움직임, 특정한 포즈), 시선처리 등등 각각 다른 인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암전을 사용하지 않고, 음악이나 소품을 매체로 사용하여 연기한다는 사실이다. 연극 '바람의 키스'에서 보아야 할 것은 남편이나 애인에게 버림받은 이들을 보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이성이든 동성이든 사이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랑'이며, 그 사랑에 대한 네 가지 유형이 수동과 능동이라는 관계부호를 그리며 나타나고 있다. 지나가는 바람처럼 겨

드랑이 사이로 지나갈 사랑일지라도 사랑에 대한 입장을 염두 해 두어야 할 것이다. 시각을 넓혀 인간이 지니고 살아가는 수많은 감정 중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랑은 바로 배려와 믿음에서 오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세대가 다른데? 어떻게?' 라는 의문부호를 찍기 전에, 나는 환상의 색깔 중 어떤 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어떻게 사랑을 하며 사랑을 가슴에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랑을 원하는가, 라는 물음표를 던져 보는 것은 어떠한가.

하경화
예술대학 연극학과 강사

- 고구려 문화유적 답사 특집 -

우리학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활)이 조합원 복지차원에서 주최한 '고구려 문화유적 답사'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5일간 진행됐다.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 및 심양지역의 고구려 문화유적 답사가 주 내용을 이룬 이번 여행에는 학부 학생 5명, 대학원생 2명, 생활 직원 4명, 직원 2명, 교수 2명, 가이드 1명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이래 글은 답사에 참여한 장시기(영어영문학) 교수의 기행문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분단의 아픔이 뱃속까지 ...

12월 13일 오후 4시 30분, '인천 발 단동 행' 페리호에 올랐다. 우리는 짐을 풀고 갑판으로 나갔다. 배가 출발하기도 전에 어둠이 배를 휘감는다. 순간, 아쉬움이 뇌리를 감싼다. 멀리서나마 북한 땅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배는 이튿날 아침 9시에 단동에 도착했다. "북한 땅이 보인다!"라는 동료의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갑판에 나가보니, 보슬비가 내리는 바다 너머로 몇 개의 섬들과 낮은 산들이 보인다. '저 곳이 북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낮설음, 그러나 친근한

버스에 몸을 싣고 단동 시내로 들어가는 길은 압록강을 따라 이어져 있는 강변길이다. 심양에 살고 있는 조선족이라는 현지 가이드는 강 너머에 있는 곳이 신의주라고 말한다. 버스는 압록강 공원에서 멈췄다. 마치 한강 강변 북부에서 남부를 바라보듯 강 건너에 있는 신의주는 나의 눈 속으로 가득 들어올 만큼 가깝다.

예약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버스에서 내린 우리는 깜짝 놀랐다. '평양 금릉식당'이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양 옆에는 인공기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고, 문을 열어주는 한복을 입은 두 여자의 가슴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라고 새겨져 있는 '김정일 배지'가 달려있다. 평양에서 직접 운영하는 북한 식당이란다.

"환영합니다!"라고 말하는 북한 여성의 목소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누군가가 "정말 예쁘습니다"라는 말에 "남남북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모습은 어렸을 적 보았던 우리 마을 옆 집 누나의 모습이다. 식사를 마치자 음식 서비스를 하던 여성들이 무대에 올라 환영공연을 한다. 우리는 긴장을 풀고 사진을 찍으며 박수를 쳤다. 공연을 마친 그녀들과 함께 사진도 찍었다.

'평양 금릉식당'의 감동은 오래갔다. 중국 만리장성의 동쪽 끝자리라는 '호산산성'으로 향

하는 버스 안에서 북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를 즐겁게 했다.

호산산성에 도착해 조선족 가이드는 산성입구에서 북한 땅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며, 성채 뒤편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초라한 시골집을 한 두개 지나 조그만 개울 앞에 멈춘 가이드는 개울 건너가 북한 땅이라고 말한다. 개울은 펄쩍 뛰면 넘어갈 수 있는 곳이다. 믿기지 않는 말이다.

그러나 개울 옆에 있는 비석에는 '중조국경지역'이라는 글씨가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일행이 반쯤 되돌아갔을 때, 누군가가 멀리 있는 조그마한 건물에서 나왔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리 속에서 회비를 교차한다. 호산산성이 눈에 들어올 리 만무다.

호산산성은 만리장성의 동단 기점으로 아주 단아하게 복원되어 있었다. '호산'이라는 이름은 산의 형상이 마치 누워있는 호랑이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란다. 그러나 산성을 오르면서 나의 시선은 끊임없이 산성 너머로 보이는 북한 땅을 향하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다시 버스에 탑승해 단동을 포함한 '요녕성'의 수도인 '심양'으로 향했다. 심양은 우리에게 '봉천'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봉천이라는 이름은 일본이 만주국을 설치하면서 지은 이름이라고 하니 일제 식민지의 잔재는 이곳에도 남아있다는 생각을 한다. 심양은 일제 식민지 시대 독립운동의 중심지이고, 시인 윤동주의 고향이기도 하다.

우리를 태운 버스는 단동-심양 간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열어서 진입을 차단해 트럭이나 버스, 자가용들이 모두 되돌아가고 있다.

현지 가이드와 중국인 운전기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더니 버스를 되돌린다. 그리고 국도가 위협하니 기차로 심양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한다.

우리 일행은 기차를 타고 심양으로 이동했다. 배를 타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기차를 타게 된

것이다. 정해진 좌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중국인 여행객들과 뒤섞여 앉았다. 이미 자리를 잡은 학생들은 중국인들과 대화에 열중이다. 중국어를 모르지만 나름대로 알고 있는 한문으로 '필담'이 가능하다.

우리는 그리 지루하지 않게 3시간의 기차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 역 앞에는 이미 현지 가이드가 연락한 대형버스가 주차돼 있다. 심양은 마치 상하이나 베이징처럼 고층빌딩으로 둘러싸인 거대도시이다. 그러나 도시는 쾌쾌한 석탄냄새로 가득하다. 우리가 타고 왔던 기차도 증기기관차였다. 버스로 이동하다보니 한글 간판이 널려있다. 현지 가이드는 그곳이 전통적으로 조선족들이 모여 사는 '서탑가'라고 이야기한다.

방치되고 있는 고구려 유적

15일 아침에 일행은 고구려의 천리장성 중 하나인 '백암산성'으로 떠났다. 백암산성은 천리장성 중에서 그나마 온전히 남아 보존되어 있는 곳이란다. 북경과 마찬가지로 심양 일대는 산이 거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평원이다.

시내를 빠져나오니 전형적인 중국 농촌풍경이 나타난다. 어린 시절을 보낸 6, 70년대 초반의 충청도 마을과 닮아있다. 길거리에는 우리나라의 거리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삼륜차(혹은 시발택시)와 마차가 즐비하다. 현지 가이드는 중국 여행의 특이한 점은 들이나 산에 거의 무덤이 없는 것 이란다. 등소평이 자신도 '화장'을 할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죽으면 '화장을 하는 것'을 법으로 정했기 때문이란다.

백암산성에 도착한 우리는 산성이 무너져 내려 방치된 채로 아무런 보존도 하지 않은 모습에 너무 놀랐다. 어제 보았던 호산산성의 모습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모습이니 중국이 나름대로 '동북공정'을 내세울 만하다는 생각도 든다.

산성을 오르는데, 길은 열어있고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은 살을 에는 듯하다. 너무 추워서 산성 길의 10분의 1도 오르지 않고 일행은 뒤돌아섰다. 산성 아래로 보이는 중국 농촌마을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온하다. 그러나 마을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 집 저 집이 모두 빈 집이다. 심양으로 직

장을 구하러 간다는 기자에서 만난 한 중국 청년처럼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것이 오늘날 중국의 모습이라 생각 하니 슬프기 그지없다.

백암산성 답사를 마치고 다시 심양으로 향하는 길은 중국의 농촌과 작은 도시들을 좀 더 살펴볼 수 있어 좋았다. 우리의 습내 정도 되는 어느 도시의 한복판에는 길거리 상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꽤 복잡한 풍경이다. 버스에서 내려 중국의 시골장터 모습을 이리저리 구경하고픈 마음이 간절하다. 미국이나 유럽을 여행하면서 느끼는 낮설음과 나 자신의 왜소함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에서 체 게바라가 남미여행을 하듯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국이나 유럽을 여행하기 전에 한반도의 풍광을 먼저 살펴보고 아시아를 여행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들이 오직 미국이나 유럽으로 향하는 것은 남북 분단 이후 우리의 제도과 삶, 그리고 개개인의 생각들이 모두 미국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마치 '괌'이나 '하와이'처럼 미국에 붙어있는 하나의 섬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대륙에 붙어있는 중국을 배나 비행기로 오고 가야만 한다.

심양 시내에 접어들니 삼성이나 LG 간판이 눈에 띄게 많다. 우리는 '심양고궁'을 방문했다. 심양고궁은 금나라의 왕 '누루하지'가 명나라를 치고 청나라를 세우기 이전의 수도이다. 그래서인지 심양고궁은 마치 북경에 있는 '자금성'의 축소판인 듯하다. 도시 한 가운데에 있는 고궁은 옛날 모습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현지 가이드는 심양고궁의 건축양식이 만주족과 몽골족, 한족의 방식이 융합돼 있다고 설명한다. 마치 자금성이 보여주는 중국식 건축양식과 경복궁이 보여주는 조선식 건축양식의 중간인 듯하다.

15일 저녁 일행과 고급 한식당으로 보이는 '모란봉 식당'에 갔다. 평양을 방문해 '단고기'를 아주 맛있게 먹었다는 황상의 교수(서울대)와 박기용 교수(상명대)의 말이 기억나 '단고기(탕)'와 '소라구이', 그리고 '들쭉술'을 선택했다.

이 곳의 공연은 이전의 '금릉식당'보다 더 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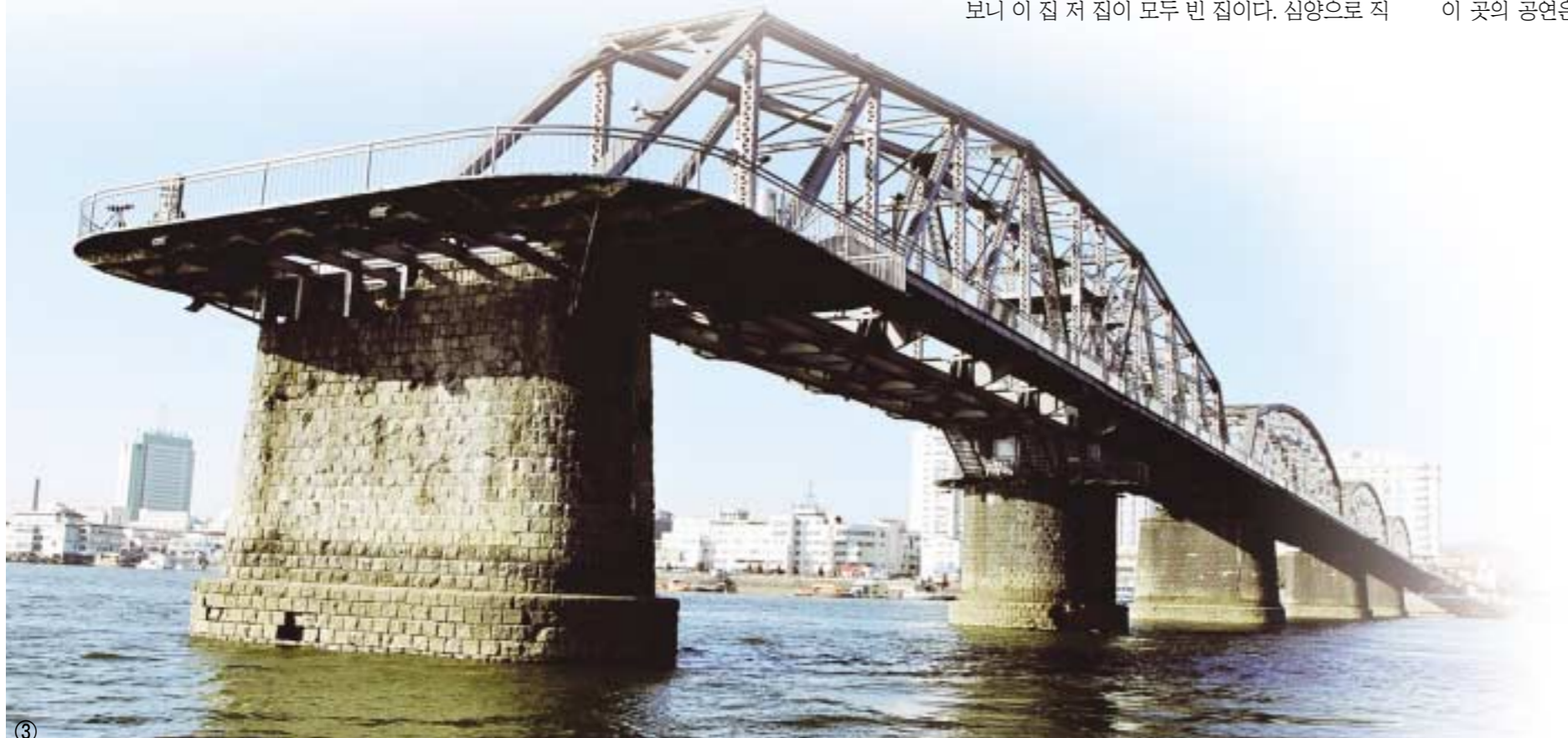
로페셔널한 공연에 가까웠다. 특히 전자 피아노와 가야금의 합작 공연은 서구의 음악과 우리의 음악을 혼합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졌다. 노래를 하고, 피아노를 치고, 가야금을 타는 저들의 모습이 한복을 곱게 차려 입었을 뿐 캠퍼스에서 만나는 우리 여학생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나는 무대에 오르는 여성과 함께 '서울에서 평양까지'라는 노래를 불렀다. 가사가 약간 다르고,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 부르는 노래였지만 정말 신명나게 불렀다. 공연이 끝나고 모든 손님들이 나간 후까지 우리는 즐겁게 이야기를 하며 심양의 마지막 밤 시간을 모란봉 식당에서 보냈다.

가까워도 못 밟는 우리 땅

16일 아침 기차를 타고 단동으로 향했다. 단동의 압록강 강변에서 중국 유람선을 타고 한국전쟁 기간에 미군의 폭격으로 무너진 압록강 철교 밑을 지나 위화도 주변을 돌아 신의주 쪽에 있는 강변 가까이에서 신의주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유람선은 배에서 펄쩍 뛰어내리면 신의주 땅에 닿을 정도로 가깝게 접근했다. 멀리 강변 언덕에 북한 사람들이 보여서 우리 일행은 손을 흔들며 인사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표정도 없이 우리를 바라보지만 한다. 중국을 여행하고, 중국에 있는 고구려 문화유적을 답사하면서 나나 우리 일행은 모두 북한과 북한 사람들을 가슴 한쪽에 하나의 한으로 지니고 다녔다.

대한민국과 중국이 서로 인정하며 상호 왕래하듯이 2005년에는 남한과 북조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서로 인정하며 상호 자유롭게 왕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2001년의 '6.15 남북공동선언'이 더 많이 실현돼 통일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국의 영토에 있는 단동이나 심양, 혹은 북경이나 상해가 아니라 자유롭게 언어가 통하는 평양이나 개성의 밤거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인식하면서 북한 음식과 술을 마시며 함께 노래하면 얼마나 좋을까.



① 백암산성 성터
② 백암산성 성터에서
③ 무너진 압록강 철교
④ 심양 고궁 앞에서
⑤ 호산산성 입구
사진 = 권영준(생활 사무국)

‘동국 한마음’의 시대를 연다



사진 = 황주상 기자

동국 한마음 어렵지 않다

“하하하”

동국 구성원 모두가 건학 100년의 새 아침을 호탕하게 웃으며 맞기를 기대해 본다.

올해가 99주년이다. 우리학교는 내년 100주년을 향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공간 확충, 조직개편, 불교병원 개원 등 지난 수년간 이뤄왔던 것들이 이제 하나 둘, 가시화되고 있다.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굼직굼직한 사업들은 많은데 여전히 여기저기에서 빼그덕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학교와 학생 간 매년 문제시 되는

등록금 협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의 불협화음 등. 이러한 것들 모두 동국이 발전하기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배제시키고 끼리끼리만 달려 나가려 하다가는 행여 ‘고장’이 나버릴지도 모른다.

동국대학교는 누구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때문에 교수, 직원, 동문, 지역주민 그리고 학생들 간의 5박자가 잘 맞춰져야만 힘찬 전진이 이뤄질 수 있다.

그것이 ‘한마음’이다.

거창한 말하기에 ‘나와는 먼 이야기’라 치부하지 말고,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고 외면하려 하지 말자. 알고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모두 한마음이 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마음, 그거 별 거 아니다. 서로 자주 만나고, 속 시원히 이야기 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되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즐겨하는 일 아닌가.

동국 100주년을 기점으로 도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성패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 해

도 과언이 아니다.

동대신문은 2005년의 시작, 지령 1400호를 맞아 동국 한마음의 시작을 알리려 한다. 아직 구성원 서로가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지면을 준비하면서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 이 지면들을 계기로 동국 한마음의 길은 시작됐다. 이미 우리는 반을 해낸 것이다. 남은 반을 꾸려 나가는 것 또한 우리 ‘동국인’의 몫임을 명심하자.

지
면
인
내



학내구성원 한마음

... 10면

정각원 Talk

학내구성원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교수와 직원 학생이 정각원에 모여 차 한 잔 하며 서로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학내구성원 한마음

... 12~13면

봉사활동 기획

지난 몇 년을 보면 학내구성원 모두 한자리에 모여 치러진 행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학내 구성원이 봉사활동 하는 모습을 지면에 담아냈다.



동문한마음

... 14면

‘동국대 예술인모임’ 이덕화 회장 인터뷰

지난 1월 25일 ‘동국대 예술인 모임’이 발족됐다. 이에 동국대 예술인 모임의 이덕화 회장을 만나 모임의 지향점과 계획을 들어보았다.



지역한마음

... 15면

총무아트홀 취재기

지역 문화와 생활체육 복지를 담당하는 총무아트홀이 곧 문을 연다. 이에 총무아트홀 생활·체육분야 운영을 맡게 된 동국대 운영본부장을 만나 활동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정각원 Talk

우리 한 번, 잘해봅시다

우리 신문에서는 지령 1400호를 기념하고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건학 100주년을 맞아 동국한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학교와 학생회간 경직돼있던 관계 해소를 모색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교수, 직원, 단과대 학생회장 등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해 보았다.

편집자

좌담회 참가자
 구승희(윤리문화학) 교수
 백승규 학생복지실 계장
 최일우 직원노조교섭 부장
 정형주(통계3) 이과대 학생회장
 박혜영(컴공4) 정산대 학생회장
 구본훈(국교4) 사범대 학생회장
 송상철(사회3)

사회자 = 지난해 학교와 학생회의 관계에 대해 평가해 본다면.

백승규 = 그동안 학교와 학생회간의 대립각들은 상호간의 불신에서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중순 경에 학생 대표자 회의가 예정돼 있었고 처음으로 총장과 실무처장이 참석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무산됐다. 이때를 기점으로 학생회와 학교간의 관계가 대단히 경색되고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되면서 불신이 싹튼 것으로 보인다.

정형주 = 학교와 학생회가 서로를 불신하게 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가 학생회의 대표성을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교가 학생회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가지 사안을 학생회에 전달하면서 학생회가 그것을 학생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학생회도 학교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들이 학생들을 위해 실시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백승규 = 학생이 있고 나서야 학교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대표로 이뤄진 학생회를 인정하지 않았던 적은 없다.

정형주 = 올해 2005학년도에 새롭게 출범한 학생회장들의 입장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지난해와 같은 극단적인 사태는 방지하지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무의미한 대립보다는 공간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

사회자 = 공간문제와 관련해 학교와 학생회간의 마찰이 생기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 서로 올바른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백승규 = 지금 우리학교가 도약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준 높은 교원확충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연구실도 확보해야 하고 급여도 개선돼야 한다. 다행히 이번 공간재배치 결과 그동안 2인 1실 연구실을 사용해 왔던 교수 40여분 정도가 개인연구실을 갖게 됐다.

강의실은 사용률이 80~90%이지만 학생공간, 특히 세미나실과 같은 경우는 공간사용이 독점화 되면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공간문제에 대한 학생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공간

사용을 독점화 해서는 안된다. 공간 재배치와 관련하여 점차적 민주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학생회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대화할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본훈 = 총학생회에서 제기하는 학자투쟁요 구안에서 항상 요구되는 부분이 교수 총원이다. 당연히 학생들도 교수 총원들 상생을 원한다. 학교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비민주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최일우 = 먼저 학생회가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학생회를 말로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일을 추진할 때 학생회의 의견을 물어보아야 한다.

그러나 공간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학생회 스스로의 운영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학생회관에 있는 동아리실을 살펴보면, 공식동아리로 인정받은 동아리는 회원수가 1명이든 2명이든 간에 자신들의 공간을 영구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반면, 신규동아리들은 회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얻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그만큼 학생들 내부에도 기득권과 같은 구시대적인 발상에 사로잡힌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다.

구승희 =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러한 문제점은 교수사회에서도 찾을 수 있다. 교수연구실이 부족하다고 원성이 높지만 정작 총장 연구실을 비롯한 19개의 연구실은 일년에 한 두 번씩의 이용이 있을 뿐이다. 또한 퇴임교수들이 연구실을 비워주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빛들이 많아야 야캠프들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이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백승규 = 앞에서 언급했지만, 무엇보다 공간 문제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된, 우리 학교실, 세미나실이 없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학교를 위한 일이라면 이해하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오픈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

박혜영 = 앞으로 바람직한 학교와 학생회의 관계를 위해서는 교직원들이나 일반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회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자세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 바람직한 학생회의 역할과 올해 활동에 대해 논한다면.

최일우 = 학생회가 학교를 사랑하고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젊은 열기로 한해 활동하는 것에 그치는 것 같아 아쉽다. 그렇다보니 학생회의 투쟁 사안이 공간문제나 등록금 인상 반대와 같은 당면한 문제에만 머무는 것이 보통이다.

보다 거시적인 시야를 갖고 장기적 사업들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학교와 대화를 나눈다면 바람직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내후년 후배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가를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하고 지금 학생회는 지나치게 정치적이란 생각이 든다.

송상철 = 학생회와 학생간의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 시대는 변화하는데 학생회는 변하지 않는

다는 지적이 많다. 학내 사안보다는 정치적 사안에 치중해 활동하는 모습은 학생과 학생회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식대가 인상 되었을 때도 학생회는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에 더욱 열을 올렸던 것 같다.

구본훈 = 정치적 사안과 복지 사안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학생들이 학생회가 정치적인 사안에만 치중한다고 생각했다면, 그만큼 우리가 학생회의 활동을 널리 알리지 못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학생회가 투쟁하는 정치적인 사안들이 결국 학생들의 이해와 동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

백승규 = 일반학생과 학생회간의 괴리는 서로 솔직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얘기만을 나누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서로간에 신랄한 비판이 필요하다. 학생회도 학생회이기 전에 일반학생이다. 따라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학생회가 이전에 비해 정치적 사안보다 복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이 노력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일반 학생들에게 의면 받는 것은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일우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학생회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일반학생들보다 더욱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최근 일어난 기아차 노조 채용비리 사건을 교훈삼아 대중을 대표하는 조직일수록 깨끗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사회·정리 =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일곱친구의 '연등'을 만들며

지난 2월 17일 오전 11시부터 학림관 앞 사제동행비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일곱 친구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2000년도 새내기 새로 배움터 사고. 이 날 다른 세상으로 떠나간 7명의 친구들을 위해 학생들은 매년 힘을 모아 새터 추모제를 준비한다.

추모제 1주일 전부터 학생들은 행사에 전 시할 연등을 만들기 시작한다. 학생회관에 모여 직접 손에 풀을 묻혀 종이를 꼬아서 말이다. 여기 모이는 학생들은 누구의 부탁으로 온 것이 아니다. 매년 이 때쯤이면 자발적으로 이 곳을 찾아온다.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신입생까지 누구든 언제든지 연등을 만들러 온다. 사범대 국어교육과의 한 신입생은 "5년 전의 친구들을 기억하며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다"며 연등을 만든다. 옆에는 추모제에서 진행할 노래를 연습하는 학생들도 보인다.

추모제 시작 하루 전, 그동안 모아왔던 모금

함을 털었더니 60여만원의 돈이 모였다. 꽤 많은 사람들이 추모행사를 잊지 않고 후원했다. "오전에 추모제만 진행하고 사람들을 그냥 집에 보내기는 아쉽잖아요"라며 미소 짓는 정기훈(정보관리 05졸)군. 이번 추모 모임 회장이자 당시 사고피해자이다. 그는 후원금 중 일부로 추모제가 끝난 후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식사할 수 있도록 '한술밥해먹기'를 기획했다. 또한 사제동행비 앞에서 일곱친구들이 있는 주변에 정성스레 만들어진 연등을 달고 비석을 닦아주며 주변청소를 한다.

'깡깡' 풍물소리가 동악을 돌며 추모제 시작을 알린다. 사제동행비 주변을 짝 메울 정도로 사람들이 제법 모였다. 정기훈 군의 여는 말이 끝난 뒤 '일곱 친구들'의 부모님과 선배 그리고 후배들은 향을 피우고 술을 따라주며 현화한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학내 이곳 저곳을 보면 너희들이 계속 생각한다"라는 강성희(국교 03졸) 양의 편지글처럼 5년

의 세월이 흘렀어도 아직까지 친구들의 눈물은 지워지지 않는다. '일곱 친구들'은 당시 학생들의 마음 속에 남은 것이 아니다. 새내기들도 추모 노래와 시로 만나보지 못한 선배에게 인사를 청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따뜻한 닭죽 한 그릇 들고 가세요." 이전의 추모제였으면 행사를 마치고 사람들은 집으로 향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죽과 누룽지탕 그리고 주변음식들을 준비해 참가자들이 쓸쓸한 날씨에 차가워진 속을 따뜻하게 채울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속을 달래며 그 날의 슬픔을 씻을 것이고 기억을 가슴 한구석에 묻어 둘 것이다.

'일곱 친구들'은 불의의 사고로 먼저 다른 세상으로 떠났다. 하지만 남아있는 이들은 떠난 일곱 친구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것이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 추모제에 사용할 연등을 만들고 있는 모습.

◀ 추모제가 끝난 뒤 닭죽을 먹는 학생들.

우리는 하나일 때 더욱 따뜻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봉사를
나보다 약한 자를 돕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우리의 아주 작은 관심이 큰 '사랑' 이랍니다.
동국 구성원들이 하나가 돼 만난
아이들의 모습이 그래서 더욱
사랑스러웠나 봅니다.

편집자

한 겨울의 끝자락을 아쉬워라도 하듯 유난히 하얀 눈이 내리던 지난 22일, 그 이름만큼이나 사랑으로 가득한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한사랑 마을'을 찾았다. 중증장애아 200여명이 모여 교육, 치료, 생활 등을 하고 있는 이곳 한사랑 마을에 동국 구성원들이 발걸음을 한 것은 올해로 벌써 7년째. 하지만 그날의 방문이 특히 더 의미 있었던 것은 교수, 직원, 학생 등 동국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따뜻한 '나눔'을 위해 모였다는 점이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목적지로 가는 길, 봉사 체험을 위해 모인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중증 장애아를 처음 만나는 생각에 약간의 흥분과 두려움으로 표정이 상기돼 있었다. 하지만 도착 후 만난 해맑은 아이들의 표정에서 모든 참가자들의 표정도 함께 밝아지며 이곳저곳에서 눈길과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말도 붙여 보고 안아도 본다. 그곳에서 함께 봉사를 시작한 그 시간부터 교수, 학생, 직원으로서 각자 신분이나 직책 등은 모두 내려 놓은 듯했다.

한사랑 마을에는 장애아들의 교육, 치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함께 이뤄지고 있어 5평 남짓한 작은 생활 방에서 5~6명의 장애아와 이들을

돌보는 생활복지사가 함께 생활 하고 있다. 처음 봉사를 위해 각 방에 들어간 학생들 중에는 혹시 자신의 손길이 아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중증장애아 복지시설에는 처음 봉사활동을 나왔다는 한 학생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제 도움이 아이를 더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까요"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복지사를 쳐다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내 눈을 맞추고 환한 미소를 지어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느새 친구가 돼 간식도 먹여주고 휠체어도 밀어준다.

"선영아, 밖에 는 왔는데 남자친구랑 같이 밖에 나가서 데이트 할까" 한 생활 복지사는 안에서 누워서만 지내는 아이가 안타까워서인지 학생에게 휠체어를 내어 주며 옆방에 있는 선영이의 남자 친구 아이와 함께 눈 구경을 시켜 달라고 부탁한다. 비록 의사표현은 잘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은 모두 알아듣는다는 선영이는 복지사의 말을 듣고 이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 아이를 휠체어에 태우고 출입구로 향하는 길, 이미 많은 봉사 참여자들이 항상 방에 누워만 있어 답답해 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바깥세상을 구경시켜 주는 데 여념이 없다. 실제로 이처럼 외출에 많은 제약

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 학교 참사랑 봉사단에서는 매 학기 400여명의 학생들이 한사랑 마을을 찾아 아이들과 놀이공원 등에 함께가는 나들이 봉사를 하고 있다.

조금씩 생활복지사는 "전체 아이들이 한번 이동을 하려면 많은 손길과 비용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장애가 적은 아이들을 위주로 외출을 나가고 있는데 동국대의 학생들이 봉사료 전체 아이들이 외출을 하면 참 많이 좋아해요"라며 고마움을 표하기도 한다.

돌아갈 시간이 됐다는 방송이 흘러나오자 참여자들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함께 묻어난다. 작은 손길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찾아왔던 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잠깐 들쭉다는 것으로 비치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앞으로 다시 찾아와 더 많이 놀아주겠다고 아이들과 약속을 하며 인사를 나눈다.

우리들에게는 아주 작은 관심이지만 힘든 하루 하루를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슴깊이 새기며 참여자들은 아쉬운 발걸음을 돌린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참여학생 체험수기

참된 '이해'를 깨우친 하루

방학의 막바지, 소복이 눈이 내리던 날, 불현듯 참사람봉사단에서 연락을 받고, 경기도 광주에 소재하는 '한사랑 마을'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우리가 한사랑 마을에 도착했을 때, 여러 지도자 선생님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들이셨다. 우리는 곧장 강당에서 한사랑 마을의 간략한 소개와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예비교육을 받았다.

그 시설에 소속된 장애인들은 대부분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영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있었다. 생활방에는 7-8명 정도의 장애우들이 지도자 선생님 한분과 지내고 있었다. 나는 '아름'이라는 방에 들어갔다. 그

방에는 대부분 16-18살 정도에 해당하는 여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었다. 들어갔을 때, 방바닥에 누워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침대에 있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 친구들 모두 다 말을 할 수 없었으며, 거동이 불편해서 지도 선생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친구들이었다.

먼저 그들에게 나 자신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비록 나이는 여고생에 해당하지만, 신체 발달은 거의 초등학교 1~2학년 정도였다. 나는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라는 친구에게 악수를 신청하고 침도 두어주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웃으면서 나를 반겼다. 말은 못하지만 내가 하는 표현들은 대충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때마다 간식시간이 되어서 정언이라는 친구에게 내가 간식을 먹여줬다. 정언이는 몸이 불편해서 방바닥을 기어 다닐 정도의 활동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말

을 다 알아듣고 표현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친구였다.

처음에는 여학생들이라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할까' 하는 고민도 했지만, 같이 지내면서 나와 그 친구들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서로의 이름을 알고 같이 어울리고 함께 하는 시간을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다.

이번 봉사활동을 돌이켜 보면, 내가 부족하고 좀 더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마음가짐을 남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라고 다짐하지만, 막상 활동을 하게 되면 생각처럼 쉽게 되는 일들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내가 힘들 때마다,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많은 힘을 얻었다.

공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

끝으로 나에게 깊은 사랑과 많은 도움을 준 참사람봉사단과 한사랑 지도자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김기철(문과대 영어영문4)



참사람봉사단 최정숙 직원 인터뷰

동국인의 '봉사' 엄마



"그냥 항상 하던 일을 했을 뿐인데, 그냥 학생들 얘기가 실어주지 않..." 한사코 자신의 사진과 기사가 나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손사래를 치는 학생복지실 최정숙 직원. 9년째 학생복지실에서 참사람봉사단을 맡아 봉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해 오고 있는 그녀는 봉사단 학생들이 사이에서는 항상 챙겨주고 보살펴주는 엄마와도 같은 존재이다.

그런 그녀에게도 학내 전 주체가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은 쉽지 않은 일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예비 교육 때 교수, 직원, 학생들이 다 함께 중증장애인 시설에 봉사를 가곤 하는데 여러 사정상 그 일이 그리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학교 교수님들과 직원들,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 비해 너무 참여를 잘 해 주셔서 외부 봉사기관에서도 칭찬을 할 정도예요"라며 환한 미소를 짓는다.

지난 99년부터 7년간 매학기 두번씩 400여명의 봉사단원들을 인솔해 중증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나들이 봉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그녀는 대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과 관련해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대학생 사회봉사활동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제시된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취업과 학점취득만을 위해 일시적이고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일시적인 참여는 봉사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학생들의 능력과 특기를 살려서 보람을 느끼며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다음 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자기 전공을 살려 교육봉사를 할 수 있도록 중구정과 학습봉사를 연계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다.

"오늘의 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에요. 앞으로 학내 전 구성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봉사기회를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제 목표이자 몫이라고 생각해요." 동국인들의 마음속에도 그녀의 어려운 사람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모두 전달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중구 구민의 웰빙을 위한 첨단 스포츠센터 개관!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Chungmu Art Hall

금세기 가장 진화된 멀티스포츠 센터!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는 동국대학교가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국내 유일, 구에서 대학에 운영 위탁)

수영장 인체의 체액염분농도와 유사한 염분농도를 인공적으로 조성한 후 진기분해물을 통해 복합살균균질을 발생시켜 인체에 무해한 인공 해수물

헬스장 최신 스포츠 시설기 및 체력검사와 및 진단, 체지방 측정을 통하여 개인의 상태를 고려한 운동처방실

골프장 K.PGA프로가 지도하며 실내9타석 실외 18타석 (비거리 400미터) 넓은 퍼팅장과 전자등 시스템으로 운영

지도강사 국가대표급 선수 출신과 오랜 경험을 가진 일류 강사들로 공개 모집하여 최고수준으로 지도

프로그램 및 회원접수 안내

수영프로그램 회원 접수
3월 7일(월) - 중구 구민
3월 8일(화) - 타지역 주민

체육프로그램 회원 접수
3월 9일(수) - 중구 구민
3월 10일(목) - 타지역 주민

문의 및 상담 : 02-2230-6703~7
홈페이지 : www.cmh.or.kr

프로그램 I 수영

대상	프로그램	반별	시간	강의인원	강사	회비	비고
일반인	성인(일반인)	남	09:00-10:00	10명	정원	4,000원	*수영수업은 4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수업장소는 충무아트홀 3층 수영수업장입니다.
		여	09:00-10:00	10명	정원	4,000원	
		혼합	09:00-10:00	10명	정원	4,000원	
	어린이	남	10:00-11:00	10명	정원	3,000원	
		여	10:00-11:00	10명	정원	3,000원	
		혼합	10:00-11:00	10명	정원	3,000원	
초등학생	초등학생	남	11:00-12:00	10명	정원	3,000원	
		여	11:00-12:00	10명	정원	3,000원	
		혼합	11:00-12:00	10명	정원	3,000원	
	중학생	남	13:00-14:00	10명	정원	3,000원	
		여	13:00-14:00	10명	정원	3,000원	
		혼합	13:00-14:00	10명	정원	3,000원	
대학생	대학생	남	15:00-16:00	10명	정원	3,000원	
		여	15:00-16:00	10명	정원	3,000원	
		혼합	15:00-16:00	10명	정원	3,000원	
	대학생	남	17:00-18:00	10명	정원	3,000원	
		여	17:00-18:00	10명	정원	3,000원	
		혼합	17:00-18:00	10명	정원	3,000원	

프로그램 II 골프, 헬스, 에어로빅, 댄스

대상	프로그램	반별	시간	강의인원	강사	회비
일반인	댄스	남	09:00-10:00	10명	정원	4,000원
		여	09:00-10:00	10명	정원	4,000원
		혼합	09:00-10:00	10명	정원	4,000원
	골프	남	09:00-10:00	10명	정원	100,000원
		여	09:00-10:00	10명	정원	100,000원
		혼합	09:00-10:00	10명	정원	100,000원
대학생	댄스	남	15:00-16:00	10명	정원	3,000원
		여	15:00-16:00	10명	정원	3,000원
		혼합	15:00-16:00	10명	정원	3,000원
	골프	남	15:00-16:00	10명	정원	100,000원
		여	15:00-16:00	10명	정원	100,000원
		혼합	15:00-16:00	10명	정원	100,000원

프로그램 III 배드민턴, 농구, 풋살, 탁구

대상	프로그램	반별	시간	강의인원	강사	회비
일반인	배드민턴	남	09:00-10:00	10명	정원	4,000원
		여	09:00-10:00	10명	정원	4,000원
		혼합	09:00-10:00	10명	정원	4,000원
	농구	남	10:00-11:00	10명	정원	4,000원
		여	10:00-11:00	10명	정원	4,000원
		혼합	10:00-11:00	10명	정원	4,000원
대학생	배드민턴	남	15:00-16:00	10명	정원	3,000원
		여	15:00-16:00	10명	정원	3,000원
		혼합	15:00-16:00	10명	정원	3,000원
	농구	남	15:00-16:00	10명	정원	4,000원
		여	15:00-16:00	10명	정원	4,000원
		혼합	15:00-16:00	10명	정원	4,000원

프로그램 IV 요가, 검도, 발레, 리듬체조, 체능교실

대상	프로그램	반별	시간	강의인원	강사	회비
일반인	요가	남	09:00-10:00	10명	정원	4,000원
		여	09:00-10:00	10명	정원	4,000원
		혼합	09:00-10:00	10명	정원	4,000원
	검도	남	10:00-11:00	10명	정원	4,000원
		여	10:00-11:00	10명	정원	4,000원
		혼합	10:00-11:00	10명	정원	4,000원
대학생	요가	남	15:00-16:00	10명	정원	3,000원
		여	15:00-16:00	10명	정원	3,000원
		혼합	15:00-16:00	10명	정원	3,000원
	발레	남	15:00-16:00	10명	정원	4,000원
		여	15:00-16:00	10명	정원	4,000원
		혼합	15:00-16:00	10명	정원	4,000원

*전용 운동복은 반드시 통째로 착용하십시오.

이덕화 '동국대 예술인 모임' 회장 인터뷰

소외된 우리 가족부터 챙겨 동문사회에 힘될 터

'동국대 예술인 모임' 창립식이 지난 1월 25일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 홀에서 열렸다. 우리학교 출신 영화인, 연극인, 방송인, 연출·제작자들이 모여 만든 이 모임의 창립은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동문사회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문과 학교간의 보다 친밀한 결속을 위한 첫걸음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에 따라 모임의 회장 이덕화(텔런트·연극영화 11기) 동문을 만나 모임의 발전방향과 동국 구성원 화합의 길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이 동문은 오는 3월 방송될 드라마 촬영으로 매우 분주했다. 때문에 촬영이 끝난 후 드라마 속 인물의 의상을 그대로 입은 채 인터뷰에 응했다.

- 모임을 창설하게 된 계기는.
= 우리학교 연극·영화학은 반세기 역사 속에서 한국의 영화·연극분야를 일으키고 이끌어가는 훌륭한 인재들을 꾸준히 양성해내고 있다. 활동을 그만두신 선배님들을 제외하고 현재 이 분야에서 활동 중인 사람들만 약 300명으로 추산된다. 분야 특성상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인원으로는 무척 거대한 숫자이다.

그런데 모두 개인적으로 바쁜 일정을 가진 직업이다 보니 제대로 한번 만나기가 힘들었다. 특히 전체적인 모임 부재로 안면이 없어 누가 선배이고 후배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다. 같은 모교를 가진 가족들끼리 서로 얼굴도 모르고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렇듯 소원해진 선후배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잦은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친한 동문들끼리 모임 때마다 서로 경·조사도 챙겨주면서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이야기 해왔다. 이러한 생각을 계기로 보다 젊은 후배들이 주축이 돼 모임을 창설하



게 됐다.

- 모임에서 주력할 사업과 나아갈 방향은.
=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모임하기로 계획했지만 개인이 모두가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어 두 세 달에 한 번 모이는 것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두 번 모임을 가졌는데 지난 번 150여명이 참석해 출발이 좋았다. 이를 출발점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모든 동문들이 모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경조사를 함께 하며 주변의 어려운 동문들을 찾아 도와줄 계획이다.

또한 지금은 개인적으로 조금씩 모아 자금을 꾸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광고 활동 등을 통해 활동자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쓸 것이다.

- 개교 100주년 사업과 연계해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그러나 예전에 학교 측에서 100주년 기념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쪽 분야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능한 동문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100주년을 맞은 우리학교가 발전과 위상 정립을 위해 이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 동문들이 합심해서 공연을 기획·제작하고 출연까지 모두 담당해 대공연장에서 공연한다면 학교 이미지가 매우 높아질

것이고 동문들도 이러한 계획을 매우 환영할 것이다.

- 동국 건학 100주년을 맞아 구성원의 화합과 학교 발전을 위해 비라는 점이 있다면.
= 먼저 '동국대 예술인 모임'과 같은 동문활동이 활발해야 할 것이다. 평소 우리학교 총동창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많은 아쉬움을 가졌다. 예전에는 연말에 총동창회 모임이 열리기 전에 연락이 왔는데 근래에는 받은 적이 없다. 동창회를 주축으로 대규모의 동문 회를 열어 사회 각계각층의 동문들이 학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사정을 알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동국 구성원을 함께 도와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국대 예술인 모임'은 기존의 지위나 체면을 버리고 봉사해 다른 동문 모임의 본보기가 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을 시발점으로 우리학교 동문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

- 재학생 후배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 졸업한 선배들이 사회에서 학교를 위해 노력할 때 후배들의 뒷받침은 필수적이다. 우리학교의 사회적 인지도가 예전만큼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에서 우리 동문은 건재하기 때문에 후배들은 자신이 동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

특히 우리 동국인은 기본이 탄탄하다. 학교가 지금 약간 부진하고 있음에 기죽지 말고 오히려 이를 자기계발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기발전과 함께 학교의 위상도 높아진다는 것을 후배들이 인식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우리는 기본이 탄탄하다.
이것이 곧 우리가 재도약
할 수 있는 힘이다”**



동문이 보내온 글

임 덕 규
법학 60졸, 총동창회 부회장
월드 Diplomacy 회장



대화합으로 세계적인 동국을 만들자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 호킹 박사는 “지구를 중심한 별이 약 2,000억 개가 있다. 이것을 하나의 우주라고 한다. 이런 우주가 수천억 개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다.

정말 우주는 무한한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구가 아름다운 별 같다. 필자는 이 아름다운 별 '지구'에 태어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한다.

필자는 지난 수십 년 간 지구를 많이 돌아보았다. 우리 선조들은 우리 조국의 국토를 아주 아름다운 곳에 정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 조국의 역사는 세계 200여 나라 중에 대체적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역사에 속한다는 것도 발견했다.

더구나 지난 30여 년 사이에 훌륭한 정치 지도자와 온 국민의 노력으로 국민소득을 단 100불에서 1만 불을 이룩해 전 세계 200여 나라 중 약 150여 나라 이상이 '한국을 모델로 우리도 잘 살아보자'라고 외치며 우리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참으로 우리 선조들과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한편 필자는 동국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인생을 마음 편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특히 백성욱 총장님의 금강경 특강 내용을 실천해보니 동서양 어느 철학자 강의보다 명강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필자는 세계경제법학회 세계 회장을 하면서, 그리고 세계적인 월간지 'Diplomacy' (외교지)를 경영하면서 만델라 대통령, 바덴사 대통령, 고르바초프 대통령, 장쩌민 주석, 레이건 대통령,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 인도 인디라간디 수상 이래 모든 수상들을 비롯해서 각 나라 왕 대통령 수상들을 약 300명이나 직접 만나보았다. 그리고 옥스퍼드대학 하버드대학을 비롯한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교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대학은 천 년이 넘는 이태리대학이다. 그러나 현재 세계 최고의 대학은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미국의 하버드대학 그리고 예일대학을 들 수 있다. 그 대학들이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한마디로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모교 동국대학교도 개교 10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백년을 회고 해보면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만해 한용운 선배를 비롯해 동대를 중흥시켰고 내무장관으로 국가의 질서를 회복시킨 백성욱 박사,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절대적인 공을 세운 김동영 의원과 최형우 의원 (우형우 좌동영 별명이 나올 정도로) 등 이 나라에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동안 18만의 훌륭한 동문들이 '세계적인 한국' 창조에 각계에서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자부한다. 이제 우리동문들은 대화합해서 자랑스럽고 위대한 동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제의하고 싶다.

한편 불교계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감히 '동대 발전이 불교 발전'이라는 것을 깊이깊이 인식하여 '동국 발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필자는 동문과 학교와 종단이 대화합하여 '세계적인 동국을 만들자'라고 결심하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모니터링 실시 안내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는 식당을 이용하는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및 생활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2005년 1학기 모니터링을 실시 합니다. 이에 동국대학교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선정기간 : 2005. 2.28(월) ~ 2005. 3.9(수) 17:00
2. 모니터 선정 통보 : 3.10(목) 17:00까지 유선 및 생활 홈페이지
3. 모니터 방법 교육 : 3.11(금) 15:30
4. 실시기간 : 2005. 3.14(월) ~ 2005. 6.30(목) 4개월간
5. 모집인원 : 교원, 직원, 대학원생 각 1명, 학부생 5명
6. 모니터 방법 : 생활에서 지급한 식권으로 시식을 한 후 설문서 제출, 월 1회 모니터회의를 실시함.
7. 모니터 평가내용
 - 가. 조리원 위생상태 평가
 - 나. 조리원, 판매원의 친절도 평가
 - 다. 청결도
 - 라. 식사의 맛과 질
8. 모니터 신청자격 :
 - 가.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1구좌 이상 출자한 조합원
 - 나. 비조합원인 경우 조합원 가입 후 활동 가능
9. 신청서 접수처 : 생활 사무국(해화관 1층)
10. 기타 의문사항은 생활 사무국(☎교내 : 2260-8949, 담당자 : 이제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복지매장 안내

위치	매장명	취급품목 (업종)	연락처
해화관	1층 생활협동조합사무국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관리운영	2260-8950
상록원	1층 종합식당	전문양식, 분식, 스낵류 일체	8977
	2층 학생식당2	한식, 양식 Set 메뉴	8977
	3층 교직원식당	한식, 양식 Set 메뉴, 주문식단	8980
동국관	지하 학생식당	한식, 양식 Set 메뉴, 분식류	8957
	그루터기매점	음료류, 과자류	8963
원흥관	3층 분구점	분구류, 편의용품	8967
	3층 아리수매점	음료류, 과자류, 분식류	8965
다향관	보리수매점	음료류, 과자류	8964
	서점	전공서적, 어학교재, 사전, 단행본 등	8956
	생물안경원	렌즈, 테, 콘택트렌즈 제작/수리	8969
	분구점	분구류, 편의용품	8968
	잡화점	스포츠 용품, 핸드폰, 기념품, 잡화류	8970
	사진관	각종사진 촬영, 현상, 확대 등	8971
	기획사	논문, 칼라출력, 상해, 명함, 스프링, 도장	8972
	컴퓨터점	컴퓨터 완성/조립, 소모품, 출력 등	8974
	여행사	철도승차권, 항공권, 배낭여행, 어학연수	8959
	교재실	각종 마스터 인쇄	8975
과학관	지하		
문화관	지하 문화관그릴(선농)	한식, 양식 Set 메뉴, 주문식단, Take-out	8961
본관	1층 제일은행	학생증 IC카드 충전, 현금 입/출금	8990
명진관	1층 조흥은행	현금 입/출금, 철도 승차권 판매	8989
해화관	1층 로즈버드	Take Out Coffee 커피류	2275-5991
만해관	지하층 이,미용실	이발, 미용	8973
학내전지역	자동판매기	원두커피, 커피, 차, 캔 음료, 패드 등	8955
	복사실	유인/무인 복사, 칼라출력, 제본, 코팅	8984

동국대학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우리학교 · 중구청 체육시설 운영 협약 체결

학교와 지역 간 화합을 위한 첫 걸음 될 것

▲ 충무아트홀 전경 모습

한 대학을 대표하는 총장과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구청장이 한 테이블에 앉아 서로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손을 맞잡는다. 그리 흔치 않을 수 있는 광경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학교 총장과 성낙합 중구청장은 양 측간의 상생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고 화합을 위한 방향을 계획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달 27일 중구청 기획 상황실에서 열린 충무아트홀 체육시설 위탁운영 관련

협약식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2001년부터 중구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 체육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중구문화체육센터 '충무아트홀'을 3년에 걸쳐 건립했다. 지하철 신당역 9번 출구 옆에 있는 충무아트홀은 대지면적이 2,774평에 달하는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는 국내에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

고 있다. 또한 각종 공연장, 전시실 등이 갖추어진 문화시설과 수영장, 골프장, 다목적 체육관 등으로 이루어진 체육시설이 함께 마련돼 있어 설립 초부터 주변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렇게 지역 내 · 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충무아트홀의 시설 중 체육시설 부분을 우리학교가 위탁경영하게 돼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많은 대학들이 지역 사회와의 크고 작은 연계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이번처럼 시설을 위탁 경영하는 경우는 우리학교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충무아트홀은 대규모 행사와 농구, 배구 경기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체육관 △해수풀 수영장 △골프연습장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운영을 맡은 우리학교 담당 부서에서는 시설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학교 학생, 교직원, 동문들의 이용도 장려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학내에

체육시설이 부족해 운동부 학생들이나 체육 관련 수업에 차질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공간을 활용해 학생들의 편의도 증진시켜 나갈 방침이다.

현재 체육시설의 운영을 맡은 담당 부서에서는 다음달 25일에 있을 개관을 앞두고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접수가 시작되는 7월 이후에 우리학교 학생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정도 무료 시범 운영을 계획 중이며, 개관 후에는 학내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학교와 충무아트홀 간 셔틀버스도 운영할 생각이다.

이번 충무아트홀 체육시설 위탁 운영을 시작으로 지역 사회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우리 학교의 이미지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나갈 수 있는 기회가 활발하게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기획부

dgupress@dongguk.edu

선상규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동국대학교 운영본부장 인터뷰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계획”

우리학교 건학 100주년을 앞두고 하루하루 바쁜 걸음을 재촉하던 선상규 전 100주년 기념사업본부장이 이번에는 충무아트홀 체육시설의 운영본부장으로서 또 한번 학교 발전을 위한 중책을 맡게 됐다.

개관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매일 저녁 직원들과 철야 작업을 하며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선상규 충무체육센터운영본부장을 만나 지역사회와의 화합을 위한 방안과 앞으로의 운영 방침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이번 위탁운영이 학교와 지역 사회간 화합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데.
- = 100주년 기념사업 본부에 재직하던 당시 학교가 지역 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끊임 없이 고민해왔다. 그러던 중 충무아트홀 위탁 운영 제의를 받았고 이번 사업이 학교 발

전을 넘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현재까지는 지방자치 단체와 대학이 연계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나 체육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일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번 우리의 위탁 운영이 대외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는 만큼 양질의 스포츠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앞으로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생각이다.

- 이번 사업이 학교에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 = 무엇보다 가장 큰 효과는 대외적인 이미지 홍보라고 생각한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충무아트홀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대외적으로 학교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체육시설인 점을 활용해 동국대학교 총장배, 중구청장배 등 각종 경기를 열어 학교의 이미지를 상승시켜 나갈 것이다.

한편 우리학교 체육부 선수들이 연습 공간 부족으로 인해 몇 년째 계속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학생들에게 연습 공간도 제공하며 경기도 진행할 생각이다.

- 앞으로의 운영 계획은.
- = 대학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인 만큼 여타의 스포츠 센터와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의 등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기획 중인 것으로 실버 건강대학을 열어 어르신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후에는 학위를 수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한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소년, 소녀 가정들을 중구청에서



추천받아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무엇보다도 중구 내 지역 주민들과 동구 구성원들이 여러 스포츠 종목의 클럽화를 통해서 화합하며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97년 정보·문화 교류 협약 그 이후 정기적인 협약 안 검토로 협력 강화시킬 것

최근 대학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캠퍼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학교 외부를 구분하는 담을 없애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학과 지역주민 간의 화합을 통해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학에서는 학교 홍보의 기회도 마련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이처럼 점차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학과 지역사회간 연합을 통해 서로간의 발전을 추구하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우리학교 역시 지난 97년 7월 중구청과 정보·문화 교류협약을 맺고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전체 5개 분야 13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된 협약 내용에는 △정보, 문화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에 관한사항 △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 복지 △지역주민 교육기회 제공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업들은 해당 분야에 따라 학내 각 부서에서 담당해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학생복지실 장학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구청 장학'의 경우 매 학기 우리학교 10명의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구청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언어연구 교육원에서는 그동안 부진하게 시행했던 지역 주민, 구청직원들을 위한 영어회화 교육, 전산 교육 등을 더욱 활성화 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참사람봉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구 지역주민 대상 자원 봉사의 경우 협력이 맺어진 97년 이래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매달 교직원 250여명, 교수 100여명이 자신의 월급에서 적게는 3천원, 많게는 3만원씩 성금을 건여 중구 관내 저소득 가정이나 무의탁 노인들에게 7년간 후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절에는 중구 내 무의탁 노인 100여명을 학교에 초대해 음식 지원, 학생들의 공연 등으로 진행되는 사랑의 나눔 잔치를 펼쳐 외부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학교 측과 중구청 사이의 검토가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일부 사업의 경우는 그동안 부진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다음달 중으로 협약 안을 새롭게 조정해 5개의 신규 사업을 보완할 계획이며 일정 기간에 지속적으로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검토 단계도 함께 포함시켜 나갈 생각이다. 이와 관련된 기획예산실의 한 관계자는 "대학의 특성을 살려 중구지역 주민들의 재교육을 위해 교양, 기초 강좌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며, 곧 개원할 불교병원에서는 의료지원 봉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가 100주년을 앞둔 지금, 100여년의 시간을 함께 한 지역사회와의 화합한 교류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화합해 나갈 수 있는 동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bob83@dongguk.edu

2005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

월	일	학사내용	비고
3	2(수)	개강	
	2(수) - 3(목)	1학기 특별시험 접수(1학년)	교양교육원
	5(토)	1학기 특별시험(1학년)	교양교육원
	7(월) - 9(수)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대학 교학과
	21(월) - 23(수)	조기졸업신청	대학 교학과
31(목) - 4. 1(금)	수강과목 취소(W)	대학 교학과	
4	8(금)	1학기의 1/3일	
	15(금)	4. 19 등반대회	학생복지실
	18(월) - 23(토)	1학기 중간시험	
26(화)	1학기의 1/2일		
5	8(일)	개교 99주년 기념일	
	10(화) - 12(목)	하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학사지원실
	15(일)	부처님오신날	
15(일)	1학기의 2/3일		
16(월) - 31(화)	2005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우수장학) 신청	학업지도교수	
23(월) - 27(금)	복수전공 포기원 접수(3,4학년)	대학 교학과	
6	1(수) - 30(목)	1학기 강의 평가	홈페이지
	7(화) - 8(수)	2학기 복학, 재입학 신청(1차)	대학 교학과
	14(화) - 20(월)	1학기 기말시험	
	21(화)	종강	
22(수) - 30(목)	1학기 성적 처리(입력,공시 및 정정)	홈페이지/담당교수	
22(수) - 8. 31(수)	하계 방학		
23(목) - 7. 19(화)	하계 계절학기	학사지원실	
8	8(월) - 10(수)	복수전공 신청(2,3,4학년)	대학 교학과
	8(월) - 10(수)	2학기 복학, 재입학 신청(2차)	대학 교학과
	16(화) - 19(금)	2학기 수강신청	대학 교학과
	16(화) - 19(금)	2학기 휴학 신청	대학 교학과
	16(화) - 26(금)	2학기 등록	재무회계팀
26(금)	200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총무팀	
29(월) - 31(수)	2학기 특별시험 접수(1년)	교양교육원	

* 학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05학년도 1학기 특별시험 안내

1. 시험일 : 2005. 3. 5(토)
2. 응시자격 : 2005학년도 1학년 재학생
3. 시험과목

학수번호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험시간	비고
RGC009	교필	실용영어1	1	10:00 ~ 10:50	
RGC007	교필	영어회화1	1	11:00 ~ 11:50	
4. 전형료 : 과목당 50,000원
5. 원서 접수처 : 본관2층 교양교육원(☎02-2260-3886)
6. 원서 접수일시 : 2005. 3. 2(수) ~ 3. 3(목), 09:00~17:00 (총 2일간)
7. 전형방법
 - 가. 실용영어1 : TOEIC 형태의 시험 실시 후 평가 (Listening Comprehension, Reading Comprehension)
 - 나. 영어회화1 : 외국인 교수와의 Interview 후 5가지 기준으로 평가 (발음, Accent, Intonation, 문장구조, 어휘의 풍부성)
8. 합격자 발표 : 2005. 3. 8(화) 학교 홈페이지
9. 성적등급 표시 : 합격한 과목에 한하여 A+, A를 부여함
10. 유의사항
 - 가. 특별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성적은 포기할 수 없으며, 정규학기의 수강신청을 불허함.
 - 나. 특별시험원서(홈페이지참조) 작성시 필히 사진부착

2005 학년도 봄학기 사회봉사 단원모집(학점 신청)

1. 신청자격 : 재학생(학년 학과 구분 없음)
2. 신청기간 : 2005. 3. 2(수) 10:00 ~ 3. 4(금) 24:00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선착순 마감)
3.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 → 재학생서비스 → 수강신청 → 사회봉사 학점신청
4. 봉사활동 기간 : 2005. 3. 16(수) ~ 5. 28(토)
5. 동국참사람봉사단 예비교육(이론 및 현장체험학습)
 - 가. 일 시 : 2005. 3. 12(토) 08:20 ~ 17:00
 - 나. 장 소 : ▶ 특강 - 본교 중앙당 08:20까지 7시간 학습
 - ▶ 현장체험학습 - 경기도 광주 소재 중흥장애인 시설인 한사랑 마을 · 향원원 중흥장애인 시설 (※현장체험학습은 예비교육 대상자 전원 학교 버스로 이동)
6. 봉사활동 방법 : 구체적인 봉사일정 및 시간은 봉사기관 담당자와 협의한 후 조정가능 (※봉사활동 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2월 25일부터 인터넷 게시)
7. 봉사활동 대상기관 : 160여개 기관 500여개 프로그램
8. 사회봉사 성적평가 및 학점처리
 - (1) 평가 방법 : Pass 또는 Fail로 처리
 - (2) 학점 인정 : 봉사기간 중 33시간 이상 활동 시(교과목:사회봉사, 이수구분:자유선택, 1학점 Pass)인정
 - ※단, 현행법시는 학점 이수시간에는 포함되지 않고 총 봉사시간으로만 학점인정
 - (3) 학점 인정시기 : ▶봄학기 활동자(2005년도 1학기 기말고사 성적에 학점변경)
 - (4) 전체 졸업이수 학점에는 포함하나 평균성적 산출 시에는 포함하지 않음.
 - (5) 전체 졸업이수 학점으로는 재학기간 중 2학점 까지 취득가능 함.
9. 사회봉사 인센티브 제도 실시 및 지원사항
 - 가. 우수봉사자 포상 및 장학금 지급/ 봉사훈장 수여/성적우수 장학금 선발시 시간인정
 - 나. 근로 장학, 연수, 취업 시 우선 추천
 - 다. 사회봉사 인증서 발급
10. 사회봉사 인센티브
 - 가. 우수봉사자의 기업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의 경험을 중요시하여 채용 과정에서 봉사활동 여부를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나. 봉사단 홈페이지 : (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동국참사람봉사단)

2005 동국 백주년



동국 건학 100년이 눈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발전적인 동국 미래 건설의 의지로,
 21세기 세계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동국을 향해
 전 동국인이 한마음으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서로의 불신과 다툼, 오해는 던져버려야 할 때입니다.
 열린 마음, 열린 대화, 열린 자리를 통해
 전 동국 구성원의 화합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동대신문은 대학 언론의 역할에 충실하며 논리적인 비판과 격려를 통해
 '동국 한마음'의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2005년, 동대신문은 이렇게 변합니다.

- 하나, 학교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건학 100주년 종합 장기기획을 실시합니다.
- 둘, 동국 구성원의 칭찬릴레이를 통해 '동국 칭찬문화' 형성을 지향하는
 '칭찬합시다' 칼럼을 신설합니다.
- 셋, 유구한 역사 속 동국시문학 100년사를 되돌아보는
 기존 '동국 시문학의 발자취' 칼럼의 필진 및 내용을 강화합니다.
- 넷, 전 동국 주체들이 주인공이 되는 '100주년 릴레이 인터뷰' 칼럼을 신설해
 100주년 준비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봅니다.
- 다섯, 독자와의 원활한 소통기능을 향상시킨
 동대신문 홈페이지(www.dgupress.com)가 새로 개편됩니다.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